

Global Trade Report

2018년 10월 수출 동향

-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개요

2	2018년 10월 수출입 동향
2	지역별 수출 동향
3	품목별 수출 동향
3	기업규모별 수출 동향

II.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4	중국
6	미국
8	베트남
10	일본
12	인도
14	ASEAN
16	EU
18	중남미
20	중동
22	CIS
24	참고1 : 지역별·월별 수출 실적(표)
25	참고2 : '18년 10월 지역별 13대 품목 수출 실적(표)
26	참고3 : '18년 10월 지역별 유망소비재·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실적(표)
27	참고4 : 13대 품목 및 유망소비재·고부가가치 품목별 수출 동향(그래프)

요 약

- **(10월 수출입 동향)** 수출 549.4억 달러(전년동기대비 +22.7%), 수입 484.8억 달러(+28.1%), 무역수지 64.6억 달러 흑자 기록

< 10월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10월	1~10월	9월	10월	1~10월
수출	448 (+6.7)	4,749 (+17.3)	506 (△8.2)	549 (+22.7)	5,053 (+6.4)
수입	379(+8.0)	3,929 (+18.8)	410 (△1.6)	485 (+28.1)	4,442(+13.0)
무역수지	69	820	96	65	611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지역별 수출 동향)** 중동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 對중국 수출은 24개월 연속 증가 및 역대 1위 실적, 對인도 수출은 2개월 연속 두 자리 수 증가, 對중동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

국가	호조품목	부진품목
중국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차부품, 선박류
미국	자동차, 반도체, 일반기계, 차부품, 철강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베트남	디스플레이, 반도체, 일반기계, 섬유류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컴퓨터
일본	석유제품, 철강, 일반기계, 석유화학, 반도체	컴퓨터, 선박류
인도	석유화학, 일반기계, 철강,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가전, 선박류, 자동차
ASEAN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EU	자동차, 일반기계, 차부품, 석유화학, 철강	선박류
중남미	선박류, 차부품, 철강, 일반기계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동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철강, 석유화학, 차부품, 섬유류, 가전
CIS	자동차, 차부품, 일반기계, 석유화학, 철강	무선통신기기

- **(품목별 수출 동향)**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자동차 등 10개 품목 수출은 증가, 평판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선박류 3개 품목은 감소, 반도체는 6개월 연속 100억 달러 초과, 일반기계·석유화학은 월간 사상 최대 수출 기록

- **(기업규모별 수출 동향)**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모두 증가(각각 19.1%, 20.4%, 34.7%)했으며, 수출비중은 대기업(66.1%), 중소기업(18.2%), 중견기업(14.9%) 순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이 전년대비 1.3%p 증가

* 수출증감률(2018년 10월, 전년동기대비) : 중소기업(34.7%) > 중견기업(20.4%) > 대기업(19.1%)

*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 2017년 10월(31.8%) → 2018년 10월(33.1%)

I. 개요

- **(10월 수출입 동향)** 수출 549.4억 달러(전년동기대비 +22.7%), 수입 484.8억 달러(+28.1%), 무역수지 64.6억 달러 흑자 기록
- 10월 수출은 지난해 10월 대비 조업일수 5일 증가 영향 등으로 22.7% 증가하여 올해 월간 최대, 연간 7번째 및 6개월 연속 500억 달러 이상 수출('18.3월, 5~10월), 1~10월 누계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5,053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6.4%)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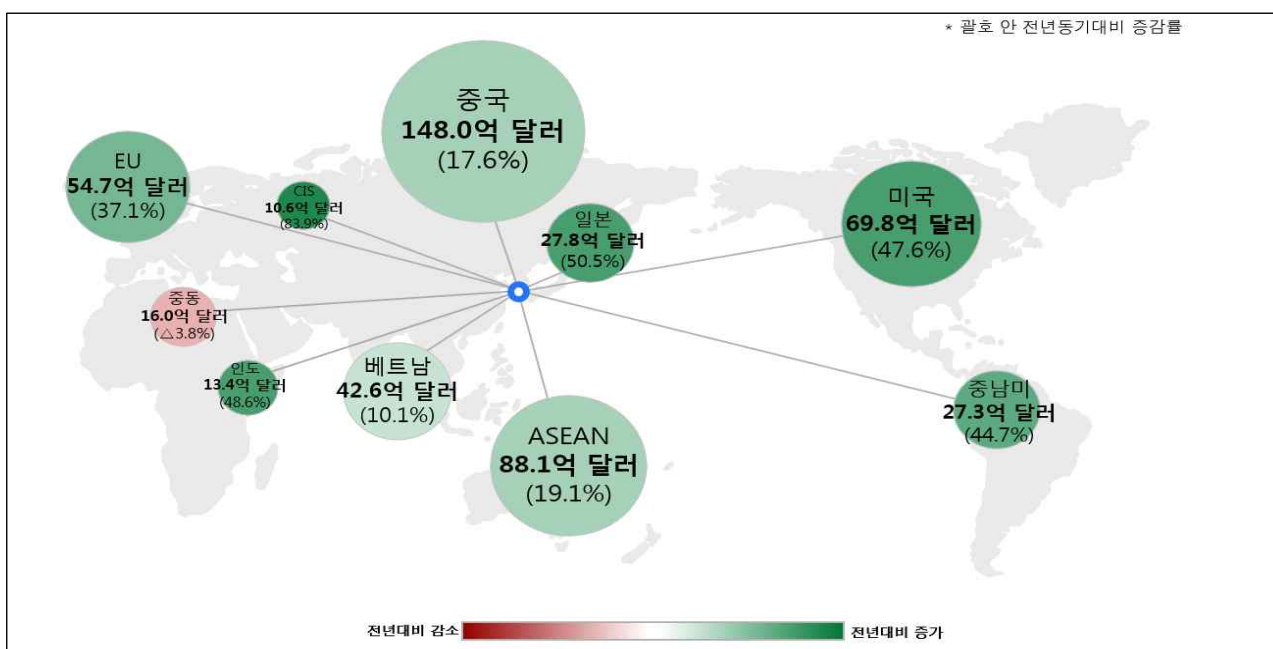
< 10월 수출입 실적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7년		2018년		
	10월	1~10월	9월	10월	1~10월
수 출	448 (+6.7)	4,749 (+17.3)	506 (△8.2)	549 (+22.7)	5,053 (+6.4)
수 입	379(+8.0)	3,929 (+18.8)	410 (△1.6)	485 (+28.1)	4,442(+13.0)
무역수지	69	820	96	65	611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지역별 수출 동향)** 중동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으며(증가 지역 모두 두 자리 수 증가), 對중국 수출은 24개월 연속 증가 및 역대 1위 실적, 對인도 수출은 2개월 연속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했으나, 중동 지역은 (對이란 경제 제재 및 내수부진 등) 3개월 연속 수출 감소



- **(품목별 수출 동향)**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자동차 등 10개 품목 수출은 증가(8개 품목 두 자리 수 증가), 평판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선박류 3개 품목의 수출은 감소, 반도체는 6개월 연속 100억 달러 초과 및 사상 최초 연간 수출 1,000억 달러 초과(10.16일), 일반기계·석유화학제품은 월간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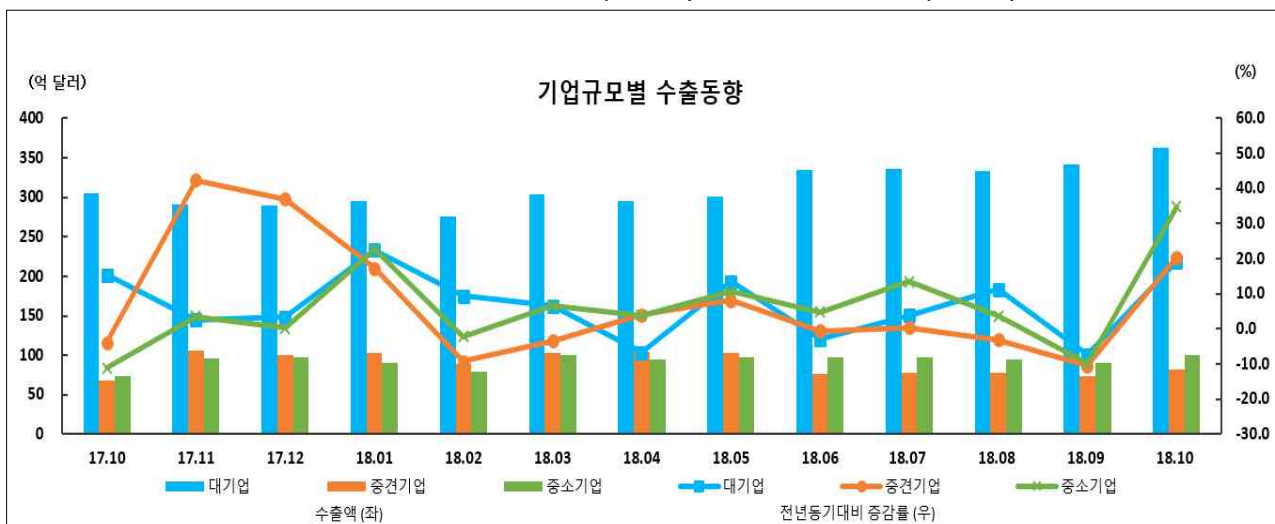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기업규모별 수출 동향)** 10월에는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수출이 모두 증가(전년동기대비 각각 34.7%, 20.4%, 19.1%)했으며, 수출비중은 대기업(66.1%), 중소기업(18.2%), 중견기업(14.9%) 순으로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이 전년대비 1.3%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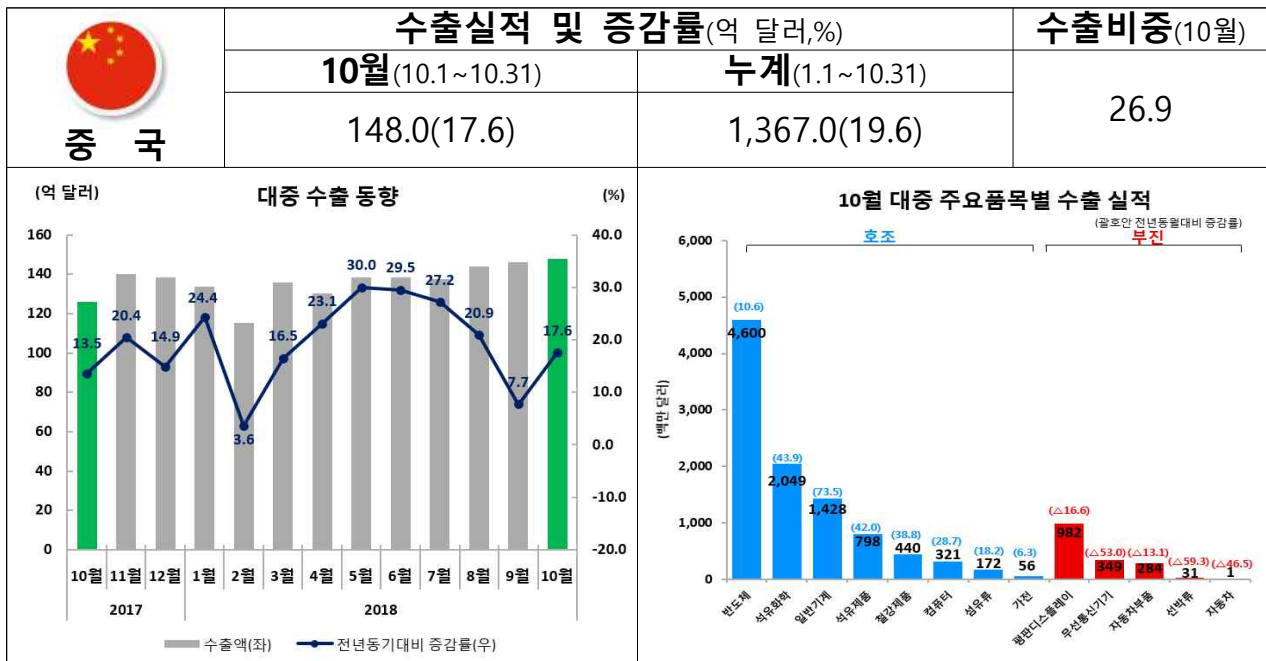
* 수출증감률(2018년 10월, 전년 동기대비) : 중소기업(34.7%) > 중견기업(20.4%) > 대기업(19.1%)

*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 2017년 10월(31.8%) → 2018년 10월(33.1%)



* 자료원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II. 지역별 수출 호부진 및 특이동향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10월 동향)** 미중 무역 분쟁 영향으로 생산·투자·교역 등 중국의 실물경제에 하방압력 증가하여 성장세 둔화되고 있으나, 10월 對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조업일수 증가 및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월간 최대 수출 금액을 경신하며 역대 1위 실적(148.0억 달러)을 기록
- **(품목별 동향)**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석유제품·철강·컴퓨터 등 8개 품목의 수출 증가, 평판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은 감소
- **반도체(10.6% ↑)** : 신규 스마트폰 생산 확대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수출 호조세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율은 전월보다 둔화

현장 정보

- * 사물인터넷, 자동차 전장부품, 데이터 서버 등 신규 수요 지속 증가 (IC Insights)
- * 3D 낸드 생산능력 증가로 2019년 낸드플래시 메모리 가격이 약 25~30% 하락하고 D램은 15~20% 하락할 것으로 예상 (반도체전문 시장조사업체, D램 익스체인지)
- * 스마트폰 공급 포화 및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 반도체 판매액과 반도체 설비 출하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반도체 시장 성장이 하향세에 돌입했다고 판단 (중국국제금융공사, CICC)

- **석유화학(43.9% ↑)** :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 중국 내 산업용·소비용 제품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중국 내 수요 증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단가 상승 등의 호재 지속되고 있으나,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의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
 . Dubai유 배럴당 가격 : ('17.10) \$55.54 → ('18.10) \$81.12 (46.1%↑)
- * 2030년까지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 1천만 배럴 가까이 증가하는 가운데 석유화학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50년까지는 석유화학이 세계 원유 수요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 (국제에너지기구, IEA)

- **일반기계(73.5% ↑)** : 인프라 구축 확대 및 '중국 제조 2025' 추진에 따른 기계 자동화·현대화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중국 내 인프라 구축 확대로 굴착기 등 건설작업 초기에 필요한 기계수요 증가 (경제관찰망)
- * 농업장비의 현대화 추세로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가능한 스마트 농업장비 수요 확대 (중국공정기계상무망)
- * 기계 제조업은 사물 인터넷(IoT) 등을 융합한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품질이 우수하고 신속한 A/S가 가능한 경쟁력이 있는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가 급증함. 또한, 한중관계 회복에 따라 기계류 관련 전시회·상담회·설명회 등 한국 제품과 기술을 접촉할 기회 확대 및 민관 차원에서의 교류 확대 추세가 중국 내 한국제품의 시장점유율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 (Hangzhou Jiacheng Machinery Co.,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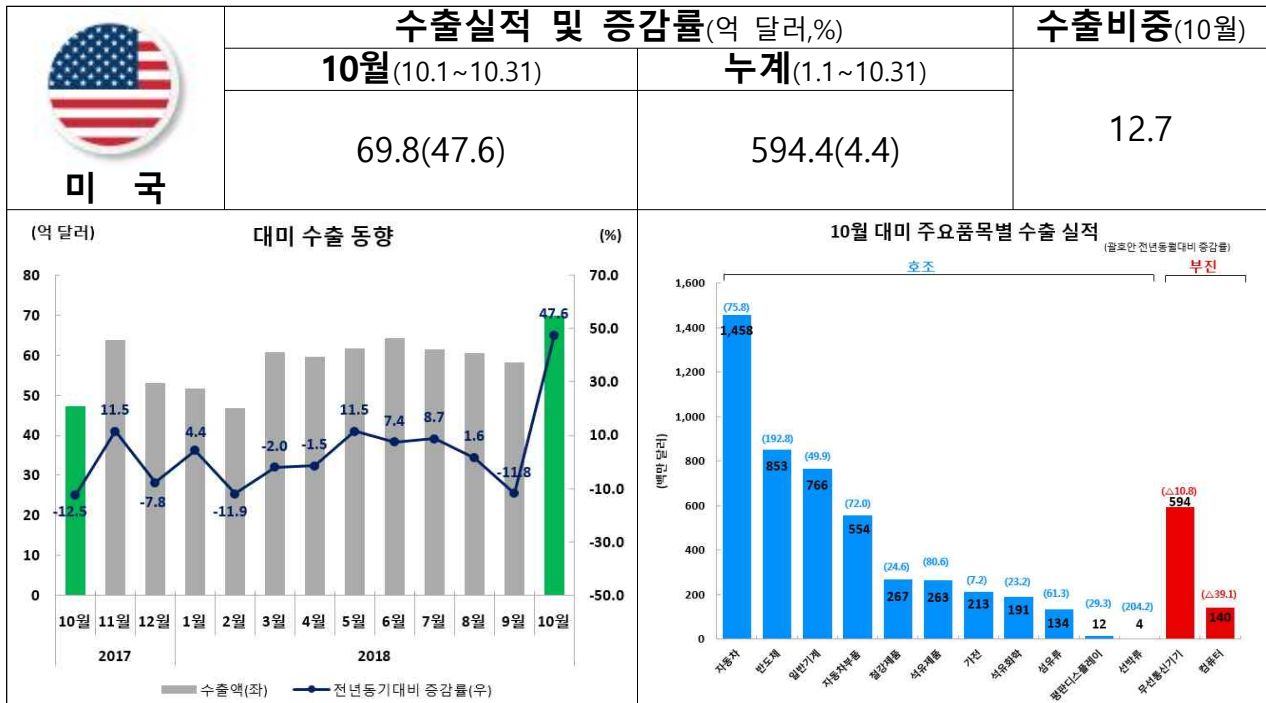
- **평판디스플레이(16.6% ↓)** : TV시장 포화에 따른 판매부진, 중국기업의 TV 패널 양산에 따른 공급 증가 및 가격 하락세로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 재고확보 목적의 수입 수요가 점차 감소하는 시기로, 4분기 중 6대 브랜드(삼성, LG, 소니, TCL, Hisense, Skyworth)의 구매 수요는 9% 감소할 것으로 전망
 . 32인치 패널은 2달러 하락, 39.5인치와 43인치는 가격 변동 없음. (조사연구기관 群智咨询)
- * 모니터 시장의 예측수요 부진한 반면 생산은 크게 늘어 가격 하락세 지속 (BOE)
 . 징둥팡의 첫 번째 G10.5 공장의 65인치, 75인치 초대형 TV 패널 양산으로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두 제품 모두 30~40% 가격 하락한 상태

□ (특이동향)

-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6.5%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 기록
 - * (GDP) 전분기 성장률 6.7%와 시장전망치(6.6%)를 하회한 수치
 - * 미중 통상 분쟁으로 물가상승 가시화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
 - * 중국 정부는 기업부담 경감 및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11.1일부터 1,172개 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율 인상 및 내년부터는 개인소득세 부담 경감 예정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10월 동향)** 미중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생산·소비 및 고용 증가 등에 힘입어 경기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對미국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 영향 및 자동차·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전월 감소에서 두 자리 수 증가율(47.6%)로 전환

□ **(품목별 동향)** 자동차·반도체·일반기계·자동차부품·철강·석유제품 등 11개 품목의 수출 증가, 무선통신기기·컴퓨터 수출은 감소

- **자동차(75.8% ↑)** : SUV 판매 증가, 수입제한조치(무역법 232조 발동) 가능성에 따른 연내 구매 수요 증가, 허리케인 침수피해 차량 교체 수요 등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미국 시장을 겨냥한 신차(소형SUV) 판매 본격화 및 수입제한조치(무역법 232조) 발동 가능성에 따른 연내 자동차 구매 수요 증가 등이 호재로 작용 (Detroit Free Press)
- * 8월과 9월 미국을 강타한 하비, 플로렌스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들의 차량 판매가 급감하면서 9월 신차판매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10월부터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침수피해 차량 교체가 시작되어 신차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 미국 전체 픽업트럭 및 SUV 차종 판매가 승용차 판매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대와 기아의 SUV 차종 판매도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됨. (LA지역 딜러)

- **반도체(192.8% ↑)** :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 및 인공지능·IoT·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스템 반도체 수요 확대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D램은 단기적으로 높은 시장가격, 타이트한 공급상황 지속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시장의 호황을 주도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낸드플래시의 범용제품인 128Gb MLC(Multi Level Cell)의 9월 평균가는 5.07달러로 전달보다 3.8% 떨어지는 등 공급 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4차 산업 관련 수요 확대 및 고용량 반도체 탑재 IT기기 확산에 따라 가격이 점차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DRAM eXchange)
- *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자율주행 등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2017년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인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22년에 553억 달러(약 62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IHS)

- **일반기계(49.9% ↑)** : 對중국 고율관세 적용 이후 중국산 기계류 가격이 상승하자 새로운 수입처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 높아져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조치 이후, 중국산 기기/기계 수입량이 높은 미국 업체들은 아시아의 새로운 수입처를 모색하고 있고 가격경쟁력이 높은 한국산 기계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Reuters)
- *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던 한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등 한국 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어 한국의 대미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있음. (S&P Global Plat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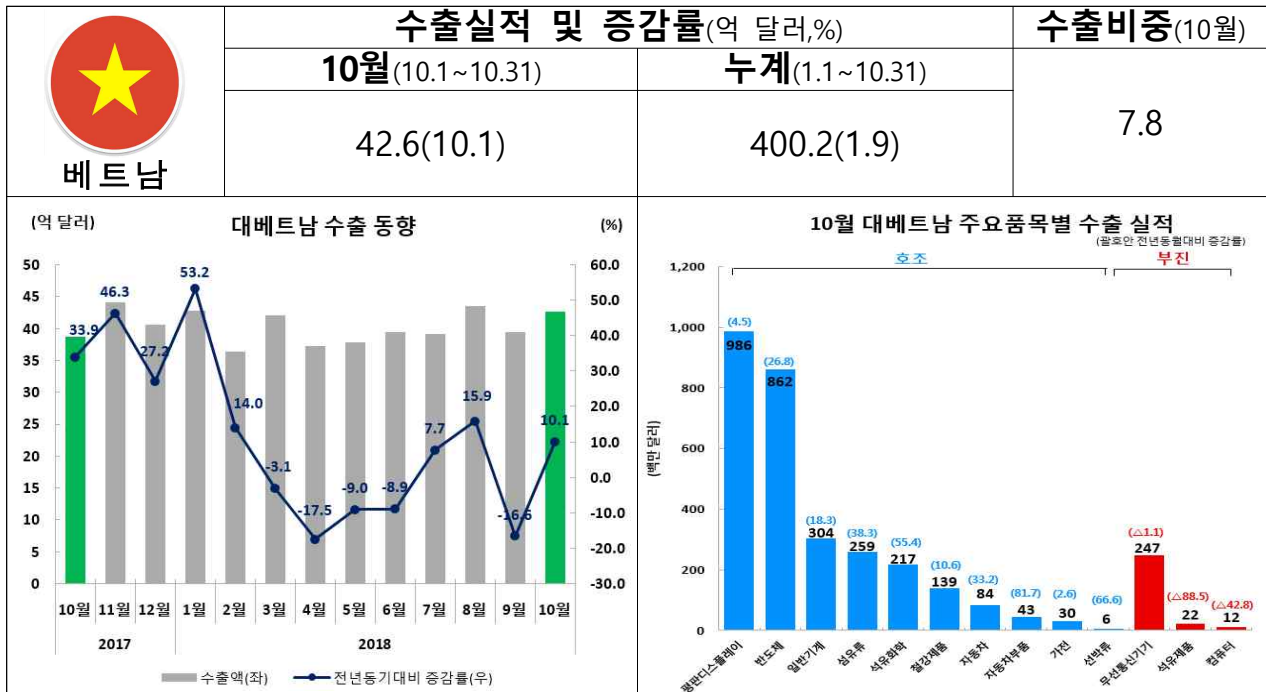
- **컴퓨터(39.1% ↓)** : SSD B2C 시장에서의 중국·대만 기업 점유율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최근 SSD B2C 시장에서 중화권 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ADATA 테크놀로지 등 대만 기업들은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중국 업체들은 더욱 공격적인 행보로 시장점유율 확대와 인지도 제고에 주력하고 있음. 현재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과 공급과잉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 SSD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DRAM eXchange)

□ (특이동향)

- 미 재무부,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등 6개국 감시대상국으로 지정
 - * 10월 17일 발표된 재무부 보고서는 우려와 달리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한국도 지난 4월 보고서와 같이 감시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
 - *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변경하여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국가를 다음 보고서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10월 동향)** 생산·소비 호조, 고용·물가 안정, 교역 증가 등에 힘입어 3분기 GDP 증가율이 6.88%를 기록하며 견고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對베트남 수출은 반도체·일반기계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이 대부분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다시 두 자리 수 증가율(10.1%)로 전환
- **(품목별 동향)** 평판디스플레이·반도체·일반기계·섬유류·석유화학·철강 등 10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 무선통신기기·석유제품·컴퓨터는 수출 감소
- **반도체(26.8% ↑)** :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모바일용 메모리칩 수요 증가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현지 우리 기업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라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 수입 수요 증가
- * 삼성전자 베트남은 9월에 갤럭시 j4+ 및 j6+, 10월에 갤럭시 A7 2018을 출시
 .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중저가 라인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9월 중순 갤럭시 J시리즈를 새롭게 출시했지만, 스마트폰 완제품 판매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보니 이들 신제품도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품 협력업체들도 고심이 큰 상황임. (삼성전자 2차 물류벤더 A사)

- **일반기계(18.3% ↑)** : 베트남 건설업·제조업 성장에 따른 수입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베트남 건설시장 및 제조업 성장으로 건설기계(굴삭기 등) 및 공작기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베트남 통계청)
 . '18.1~9월 기준 베트남 건설시장 및 제조업 성장률 전년 동기대비 각각 8.5%, 12.7% 기록
- * 베트남 정부도 Industry 4.0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산업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이에 맞춰 기계류 수요도 점점 고품질화·다양화되는 추세임.
 . 베트남 제조업 성장으로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산 기계류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큼. (현지 기계설비 및 밸브류 수입유통 K사)

- **섬유류(38.3% ↑)** : 베트남産 의류제품 수출시장 확대로 현지 의류 생산량이 늘면서 對베트남 원사·직물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 '18.1~9월 기준 베트남의 의류제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7.1% 증가하는 등 베트남의 의류제품 수출시장이 지속 확대되는 추세임. 이에 따라 현지 의류 생산량도 늘면서 이를 생산하기 위한 원사 및 직물 수입 수요가 증가함.
 . 한국은 직물, 원사 부문에서 각각 베트남의 제 2위, 3위 수입대상국임. (베트남 관세청)
- * 올해 베트남 섬유·의류산업은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한국, EU, CPTPP 참여국을 대상으로 수출액이 늘어나는 등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베트남 섬유·의류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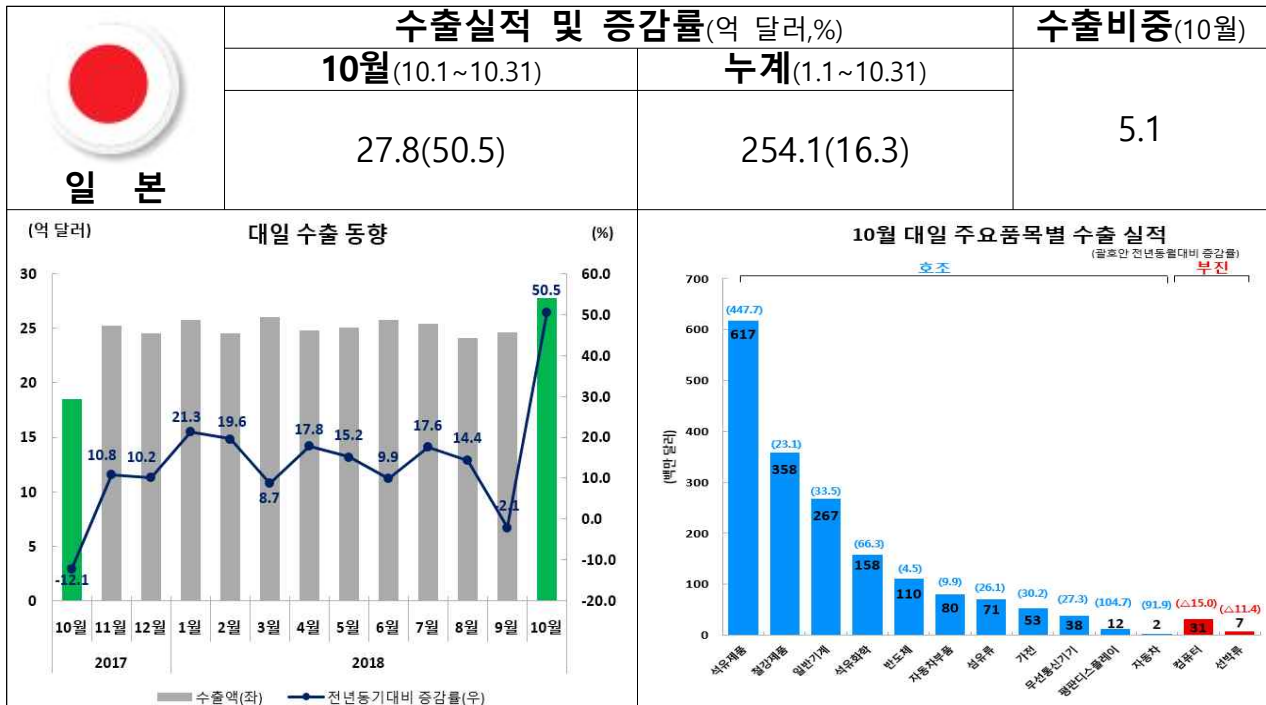
- **컴퓨터(42.8% ↓)** : 부품 및 주변기기 분야에서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열위 등으로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 베트남 내 컴퓨터 부품 및 주변기기는 중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가격경쟁력 및 인접한 지리적 이점 때문임. (현지 전자제품 유통업체 N사)
 . LG노트북(gram) 등 일부 한국 컴퓨터가 유통되고 있지만 판매량은 부진하며, 관련 부품 및 주변기기(메인보드, HDD, 프린터 등)는 중국산 제품이 거의 대다수임.
- *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컴퓨터 수출은 관련 부품 및 주변기기 비중 약 60%, 완제품 비중 약 10%로 노트북 형태의 완제품 보다는 관련 부품·주변기기 수출 비중이 큼.

□ (특이동향)

- 베트남, 10.1일부터 도로·철로를 통한 폐기물 수입금지 등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 * 폐기물 위탁수입활동 전면금지, 6가지(철/강철, 플라스틱, 종이, 유리, 비철금속, 고로슬래그) 폐기물에 대한 환경기술규정 발표, 수입 가능한 폐기물 36종에서 24종으로 축소 예정 등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10월 동향)** 고용·소득 여건 개선,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 지속 되는 가운데, 10월 對일본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기저효과 및 9월의 자연재해에 따른 석유제품·철강 등의 원자재 수입수요 확대 영향으로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반등하며 2011년 4월 이후 최고의 수출 증가율(50.5%)을 기록

□ **(품목별 동향)** 석유제품·철강·일반기계·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부품·섬유류 등 11개 품목의 수출 증가, 컴퓨터·선박류 수출은 감소

- **석유제품(447.7% ↑)** : 일본 정유업체 구조개편에 따른 생산 감소,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10월 한국의 對일 나프타 수출이 급등(전년 동기대비 4배 이상 상승)했으며, 일반 가솔린 가격은 미국의 셰일가스 및 이란 경제 제재 등으로 10.22일 160엔을 기록(4년 만에 최고치)
- * 이데미츠흥산(모회사)과 쇼와셀석유(자회사)는 주식교환 방식으로 내년 4.1일 합병한다고 발표함. (10.16일)

- **철강제품(23.1% ↑)** : 9월 자연재해(태풍·지진)로 인한 일본 내 생산 감소, 건설용 및 자동차 생산용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 9월 태풍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일부 제철소가 생산을 중단하는 등 일본 내 조강 생산량이 전년 동월대비 2.4% 감소한 842만 톤 규모였음. (일본철강연맹)
 - . 홋카이도 지진에 따른 대규모 정전으로 생산 감소
 - . 태풍 여파로 신일본제철의 나고야제철소, JFE스틸의 서일본제철소에서 출하 감소
- * 수도권 재개발을 위한 건설수요와 자동차 수출에 따른 수요 등 국내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신일본제철)

- **일반기계(33.5% ↑)** : 제조업 경기 상승에 따른 설비투자 증대 및 자동화 수요 증가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정부 쪽 수요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일본 내 수요가 견조하여 전반적인 산업기계 수주 환경이 호조세 (일본 산업기계공업회)
- * 2020년 올림픽 대비를 위한 환경대책의 일환으로 제조업 등에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자동화 설비 부분은 가격대비 품질이 좋은 한국산 제품을 선호함. (후지산업 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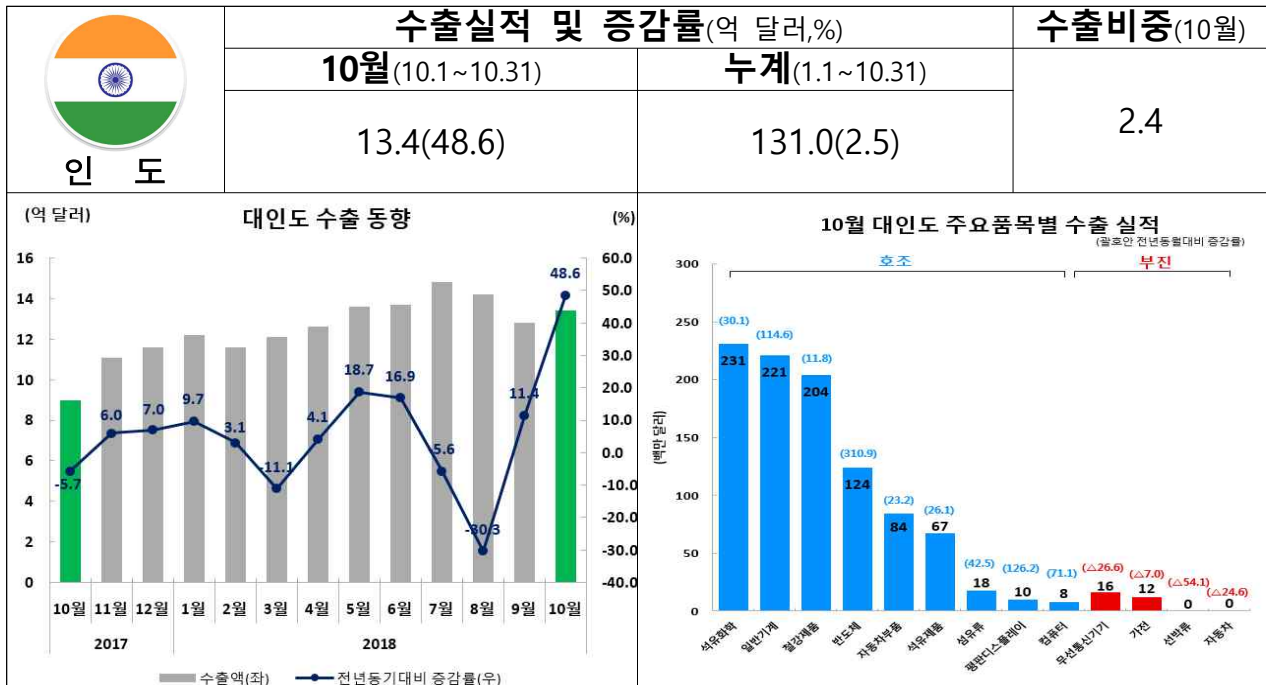
- **석유화학(66.3% ↑)** : 합성수지 등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일본 업체의 정기보수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수출 증가세

현장 정보

- * 경기회복을 배경으로 일회용품이나 산업자재용으로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나 일본 석유화학업체의 정기보수로 생산량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 '18.1-8월 폴리프로필렌의 수입량은 전년대비 2배 이상, 폴리에틸렌도 20% 이상 증가
 - . 에틸렌 생산량은 10년 동안 20% 감소, 설비가동률도 90%대 후반 수준
- * 일본 석유화학업체들은 식품포장필름 등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을 중심으로 합성수지 판매가격 인상 예정
 - . 프라이머폴리머 10%, 폴리에틸렌 5%, 범퍼 등 자동차부품에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의 가격도 5%~10% 인상 결정

□ (특이동향)

-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1) 12월 30일 발효 예정**
 - *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호주가 국내비준을 완료(10.31)함에 따라 60일 후(12.30) 발효 조건을 충족
 - * 세계 GDP의 13%, 세계교역의 15%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권, 나머지 5개국(베트남, 페루, 칠레, 브로나이, 말레이시아)도 연내 비준 완료 전망
 - * 장관급 'TPP 위원회' 1차 회의 내년 초 일본에서 개최, 회원국 추가 가입 등 논의 예정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10월 동향)** 글로벌 무역 분쟁 및 유가 상승 등 대외변수는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나 생산·소비·교역 호조 등 견고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對인도 수출은 인프라 확충 정책과 현지 투자진출 증가에 따른 철강·일반기계 등의 수출 호조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수출 증가율(48.6%) 달성
- **(품목별 동향)** 석유화학·일반기계·철강·반도체·자동차부품·석유제품 등 9개 품목의 수출 증가, 무선통신기기·가전·선박류·자동차의 수출은 감소
- **일반기계(114.6% ↑)** : Make in India 정책에 따른 인도 내 생산설비 수요 확대, 한국 자동차 기업의 현지공장 건설 등의 영향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Make in India 정책에 따른 기계류 수입 지속
- 인도정부는 지난 6월 중고기계에 대한 수입 허가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으며, 이는 인도 내 공장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삼성전자, 기아차의 공장 증설과 신규투자로 생산설비를 중심으로 기계류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음. 이외에도 철강, 화학,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글로벌 및 인도 기업의 설비투자가 확장되면서 기계류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철강제품(11.8% ↑)** : 인도 내 건설·인프라 확대 및 자동차 산업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한국·일본산 철강 선호 등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인도 정부의 인프라 확충 정책이 지속되고 인도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견조함에 따라 철강소비량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대차가 70만대를 현지 생산 중이며, 기아차가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30만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자동차용 철강판재의 경우 품질 문제로 현지 생산품을 사용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
- * 9월 인도의 철강 수입액은 14.36억 달러로 전년 동기비 10.78% 증가했으며, 특히 CEPA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 석유제품(26.1% ↑) :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상승 및 자동차용 윤활유 제품의 수입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 급증

현장 정보

- * 연초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66달러였던 유가가 80달러를 돌파하고 루피화의 가치가 연초 대비 10% 넘게 하락하면서,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음.
· 최근 대인도 석유제품 수출액 증가는 인도 내 수요증가와 더불어 유가 상승에 의한 제품가격 인상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 인도 자동차 시장의 꾸준한 확장으로 인도 자동차용 윤활유 시장 또한 성장을 지속해 2022년에는 시장규모가 9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9-10월 기간 동안 인도 내 윤활유 업체들이 원가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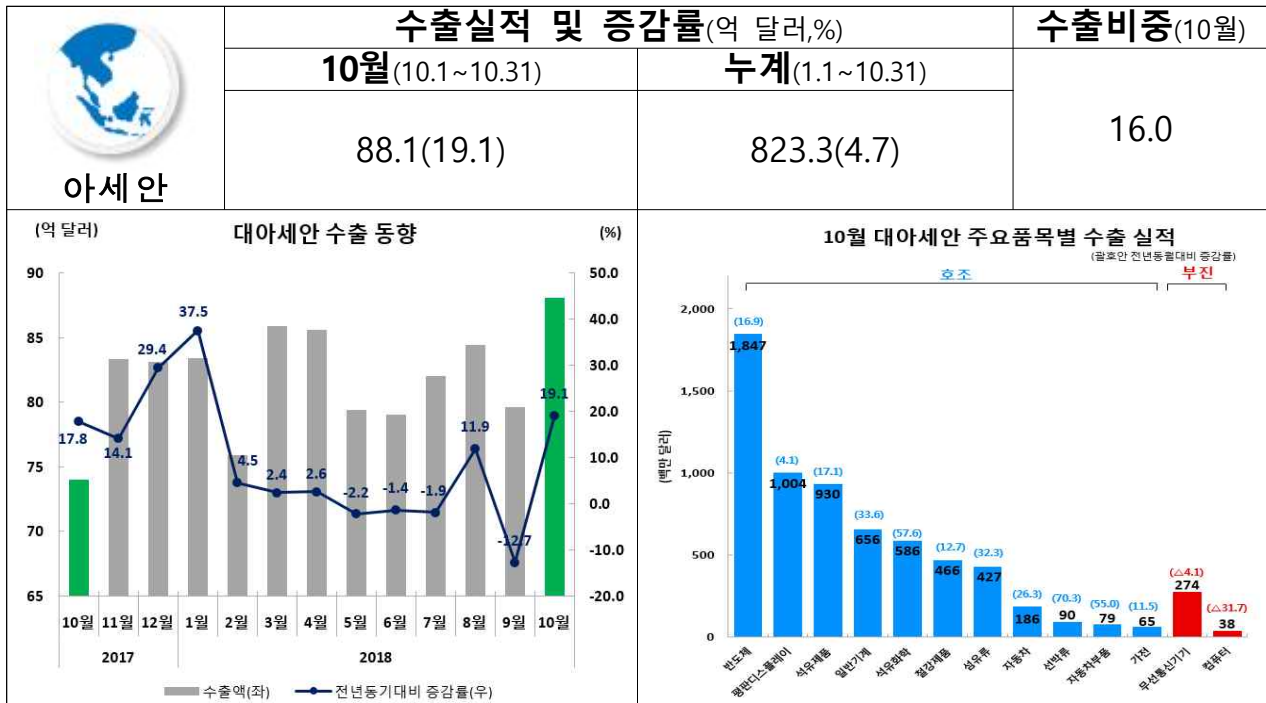
- 무선통신기기(26.6% ↓) : 한국·중국 기업의 스마트폰 현지 생산 확대, 통신기기와 장비에 대한 기본관세 추가 인상 등으로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 삼성전자 외에도 홍차이 그룹 등 중국산 스마트폰 메이커들이 인도 내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늘어난 현지생산으로 인해 금년도 인도의 휴대폰 수입은 2017/18 회계연도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됨.
- * 인도 정부는 2017년 7월에는 휴대전화/기지국, 2018년 2월에는 휴대전화/휴대전화 액세서리/TV 부품, 최근(10.26일)에도 통신기기와 장비에 대한 관세 인상을 단행한 바 있음. 현지 언론에 의하면 매년 80억 달러에 달하던 통신기기·장비 수입액이 이들 관세 인상 조치 이후 지난 2분기 동안 20-30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 (특이동향)

- 인도 정부, 루피화 약세와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9.26일에 이어 10.12일에도 4개 품목의 관세를 인상
 - * 대상품목은 통신 기지국(10%→20%), 기타 통신장비(10%→20%), 스마트워치(10%→20%), PCBA(0%→10%)이며, 동 조치로 인도 정부는 FY2018/19 4-8월 동안 전년 동기 대비 확대(GDP의 0.6% → 1.9%까지 확대)된 경상수지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주 : 베트남 포함 실적

□ **(10월 동향)** 일부 국가의 화폐가치 하락과 물가상승 등 하방 리스크 존재하나 교역 증가 및 건설업·제조업 호황으로 견고한 성장세 유지되는 가운데, 10월 對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석유제품·일반기계 등의 수출 호조로 전월 감소에서 다시 두 자리 수 증가(19.1%)로 전환

□ **(품목별 동향)**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석유제품·일반기계·석유화학·철강 등 11개 품목의 수출 증가, 무선통신기기와 컴퓨터 수출은 감소

- **반도체(16.9% ↑)** : 현지 한국 기업의 신규 스마트폰 출시·생산에 따른 부품 수요 증가, 주요국의 ICT 시장 성장 등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필리핀)** 반도체 관련 전자제품의 전반적인 판매실적 증대로 한국산 수입 수요 증가
- * **(말레이시아)** 새로운 스마트폰 라인업, 태블릿 시장 회복 및 자동차 산업의 안정적인 수요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기대됨. (MIDF Research)
- *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경우 반도체 품목 중 한국의 주력 생산품인 전자집적회로가 아닌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 반도체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싱가포르 전자제조업 부문의 호조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석유제품(17.1% ↑) : 유가 상승, 건설업·제조업 분야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싱가포르)** 싱가포르 내 정유사들은 2020년 도입 예정인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용 연료 관련 규정(황 함유량 현 3.5%에서 0.5%로 제한) 준수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이러한 친환경 규제가 향후 석유제품 교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 **(필리핀)** 경기호황으로 한국산 수입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 **(말레이시아)** 석유제품의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유가 상승과 맞물려 한국산 수출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 **(인도네시아)** 한국산 휘발유 수요는 여전이 높은 편이나, 공공·민간부문의 교통, 중장비, 방산장비 연료의 최소 20%를 바이오 디젤로 구성해야 한다는 B20법이 9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한국산 제품 수출증가율은 전월대비 감소

- 일반기계(33.6% ↑) : 제조업·건설업 호황 및 한국기업의 현지투자 증대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기계류 수출 호조세

현장 정보

- * **(인도네시아)** 한국의 對인니 투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장비 등 자본재에 대한 수입 수요가 높으며, 인니 정부의 전력 생산량 증대 계획, 인프라 구축 및 제조업 육성 정책 등의 영향으로 산업용 기계에 대한 수요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정부 출범으로 일부 건설 프로젝트가 보류되고 있으나, 제조업 여건 개선으로 기계 수요는 증가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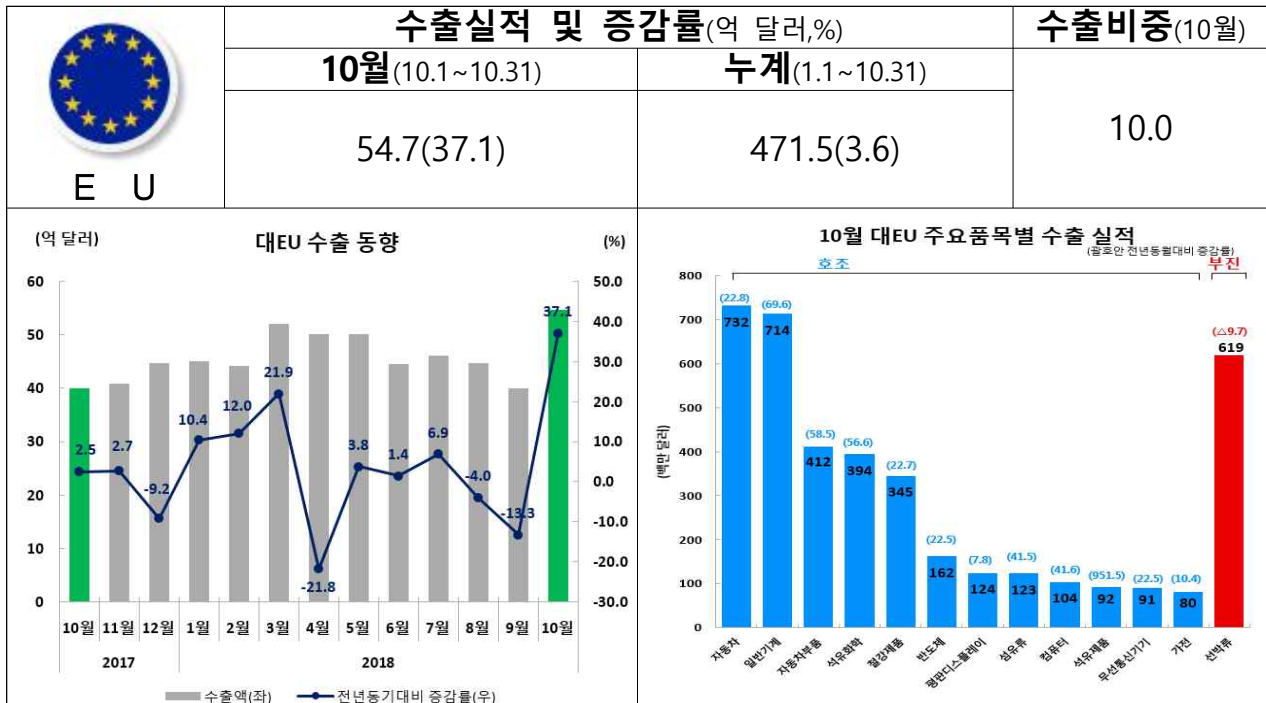
- 컴퓨터(31.7% ↓) : 재고물량 증가 및 수입세율 인상(인도네시아), 수입시장 내 경쟁 심화(필리핀) 등으로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 **(필리핀)**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 수입시장 내 경쟁이 치열하여 한국산 수요 지속 감소
- * **(인도네시아)** 충분한 재고확보로 인한 수입 불요, 현지 시장에서의 컴퓨터 제품의 판매 실적 감소, 9월에 상향조정된 선납법인세(수입세) 적용 등의 영향으로 일부 부속품(프린터, 데이터 디스플레이 장치)을 제외한 컴퓨터 제품의 수입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함.

□ (특이동향)

- 對동남아 FDI 증가, 미중 통상 마찰로 인한 영향이라는 분석 제기
 - * 베트남 제조업 관련 FDI 투자유치금액은 2018년 1-9월간 18% 증가(한국기업 효성의 12억 달러 규모 polypropylene 생산 프로젝트 포함), 태국은 1-7월간 FDI가 전년 동기대비 53% 증가, 필리핀의 경우 1-7월간 제조업 순FDI 유치금액이 전년 동기대비 5배 이상 급증 등 (Maybank Kim Eng Research)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10월 동향)** 고용 안정, 소비·투자 확대, 수출 호조 등에 따라 안정적인 경기 회복세 지속되는 가운데, 10월 對EU 수출은 기계류·철강 수요 증가 및 신규 출시 차량 판매 증가에 따른 차부품 수요 확대 등으로 선박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37.1%)을 기록

□ **(품목별 동향)** 자동차·일반기계·자동차부품·석유화학·철강·반도체 등 12개 품목의 수출 증가, 선박류 수출은 감소

○ **일반기계(69.6% ↑)** : 경기회복세에 따른 생산시설 보수 및 증설, 2024년 파리올림픽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수요 증가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프랑스)** 2024년 파리 올림픽 개최, 파리 CDG 공항 '터미널 4' 및 파리-공항간 급행열차선(CDG Express) 및 그랑 파리(파리 광역 교통망 및 주거지 확충 계획) 등 국가 단위의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그에 따른 기계설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철로, 도로 설비, 지하철역 개통과 같은 교통망 구축 공사 및 경기장, 주거단지 확충 공사에 필요한 건설용 기계설비 수요 증가
- * **(네덜란드)** 네덜란드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생산시설 보수 및 증설에 대한 정부의 기업 투자 금액이 확대되면서 각종 기계 부품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중

- **자동차(22.8% ↑)** : 친환경 정책에 따른 수소전기차 수요 확대, 수출 단가 높은 신형 SUV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 **(이탈리아)** 차량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단가가 높은 신차 SUV(기아 스톨닉)의 판매 증가로 전체적인 차량 매출이 증가함.
·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스톨닉은 물량의 50%를 한국 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입 중
- * **(네덜란드)**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서유럽 지역에서 수소전기차(현대 넥쏘 등)에 대한 수요 및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수출 호조세

- **자동차부품(58.5% ↑)** : 신규 출시 차종의 안정적 판매로 인한 생산량 증가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부품 수요 확대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슬로바키아)** 기아차 5월 신규 출시 모델인 CEED 차종의 서플라이체인이 안정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생산량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입 수요도 동시 증가 추세임.
· 슬로바키아 내 OEM인 VW, JLR 등도 한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지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자동차 부품업체 A사)
- * **(폴란드)** 일반적으로 폴란드 자동차부품 수입자는 분기 중 특정기간에 대량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10월 중 대량 발주가 이루어지면서 자동차 부품 수입이 크게 증가함.
· 올해 초부터 자동차부품 수입량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모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동차 수입업체 S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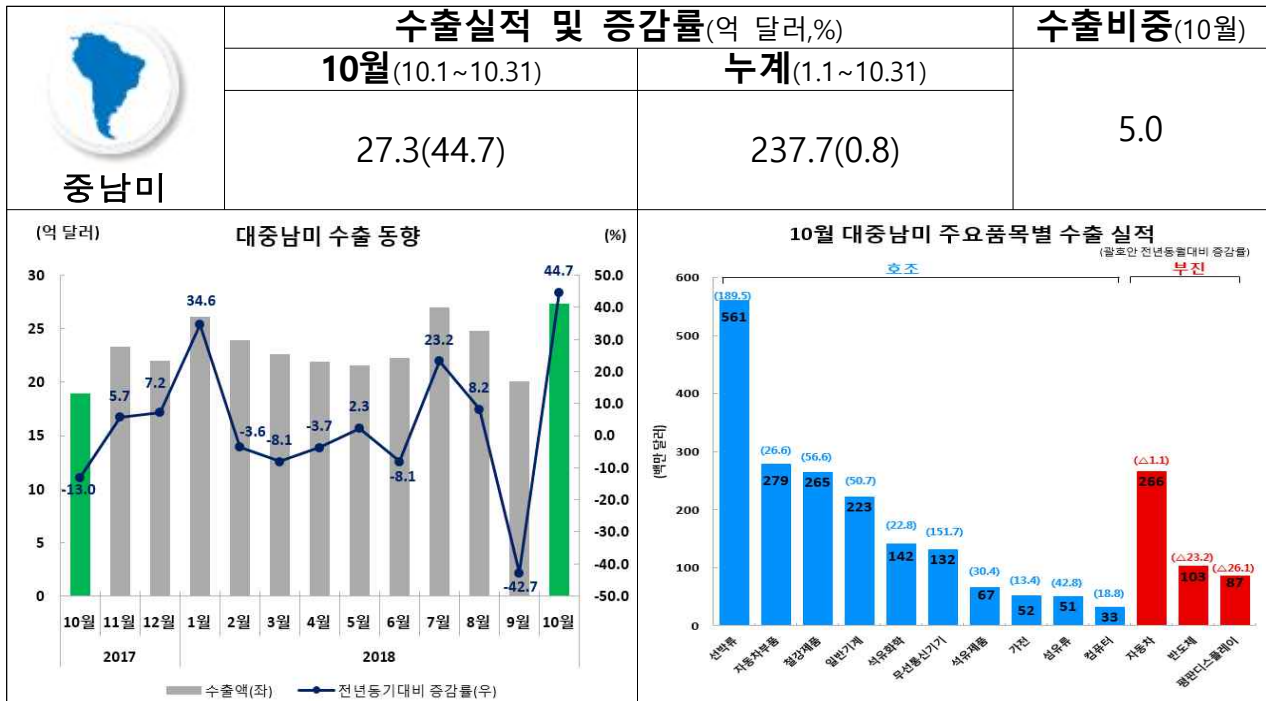
- **선박류(9.7% ↓)** : 글로벌 해운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 선박 수주 부진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덴마크)** 머스크가 주문한 6대의 Triple E-vessel 선박이 인도 완료되는 '18년 하반기 이후 더 큰 폭으로 수출액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덴마크 선주협회)
- * **(독일)** '16년부터 지속되어온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 부진이 수출 부진으로 이어짐. 일부 전문가들은 '18년 하반기부터 업계가 점차 회복 국면에 접어든다고 평가하나, 발주부터 인도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상 향후 2년 이상 선박류 수출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

□ (특이동향)

- 독일, 수소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여 2025년까지 400개의 충전소 설치 예정
 - * 현재 독일 완성차기업 중 수소전기차를 상용화해 판매하고 있는 기업은 없으나(메르세데스 벤츠가 10월말 GLC F-CELL 모델을 렌트 차량으로만 출시), 정부 차원에서 수소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구매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 중
 - * 인프라 구축 완료되는 2025년을 전후해 각 기업의 수소전기차 양산 본격화될 전망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10월 동향)** 현지 화폐가치 하락, 정치지형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중남미 전체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최근 주요국에서 내수가 회복되고 USMCA(NAFTA 20) 합의로 투자심리도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대중남미 수출은 자동차부품·철강·일반기계 등의 수출 호조로 대폭 반등하여 올해 최고의 실적(27.3억 달러, 44.7%)을 기록

□ **(품목별 동향)** 선박류·자동차부품·철강·일반기계·석유화학·무선통신기기 등 10개 품목의 수출 증가, 자동차·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는 수출 감소

- **자동차부품(26.6% ↑)** :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 현지 자동차 생산량 증가에 따른 부품 수요 확대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브라질)** '18년 브라질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13.7%가 증가한 245만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자동차 생산 증가에 따라 부품 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자동차산업협회 ANFAVEA)
- * **(멕시코)**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량이 증가하며 부품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데, '18년 멕시코 자동차 생산량은 410만대로 전년대비 약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IHS)
- * **(아르헨티나)** '18년 1-9월 자동차 생산량은 37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5.6% 증가함. 대부분 자동차 제조는 부품을 수입하여 현지에서 조립하는 형태이므로 한국산 부품 수요도 증가함.

- **철강제품(56.6% ↑)** : 현지 자동차 산업 및 기계장비 산업 호황, 철강 수입 쿼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멕시코)** '18년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의 냉연강판 철강 수입쿼터 증가 및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활성화로 인해 철강제품 수요 증가
 . '18년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의 냉연강판 철강 수입쿼터가 전년대비 각각 45,000톤, 545,000톤 증가했으나, 멕시코 연방관보에 따르면 현재 동 수입쿼터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쿼터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
- * **(브라질)** 자동차, 기계장비 산업 호황으로 철강제품 수요 증가
 . '18년 9월 철강제품 소비는 약 180만 톤으로 전년 동월대비 3.2% 증가, 철강제품 수입액은 2억 3,1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7.4% 증가 (철강제품유통협회 INDIA)
- * **(콜롬비아)** 미·중 관세 전쟁 이후 중국에서 철강을 수입하던 기업들이 수입선을 대체하여 한국산을 찾기 시작함에 따라 한국산 철강제품의 수출 증가세

- **일반기계(50.7% ↑)** : USMCA(NAFTA 20) 출범 합의에 따른 기업의 투자 심리 회복, 제조업 활성화 및 생산시설 근대화 등에 힘입어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멕시코)** 최근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이 USMCA 출범에 합의하면서 그 동안 투자를 유보했던 기업들이 투자를 재개함에 따라 기계류 수요 증가
- * **(브라질)** '18년 6-8월 브라질 제조업체들의 생산성 제고 및 생산시설 근대화를 위한 기계장비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약 10% 증가, 동기간 산업용 기계장비 수입은 10.7% 증가 (산업정보지 DCI)
- * **(페루)** '18.2분기 이후 광산업계의 투자가 지속 증가하였으며, '19년에도 대규모 광산 건설·확장 프로젝트로 인해 광산 관련 기계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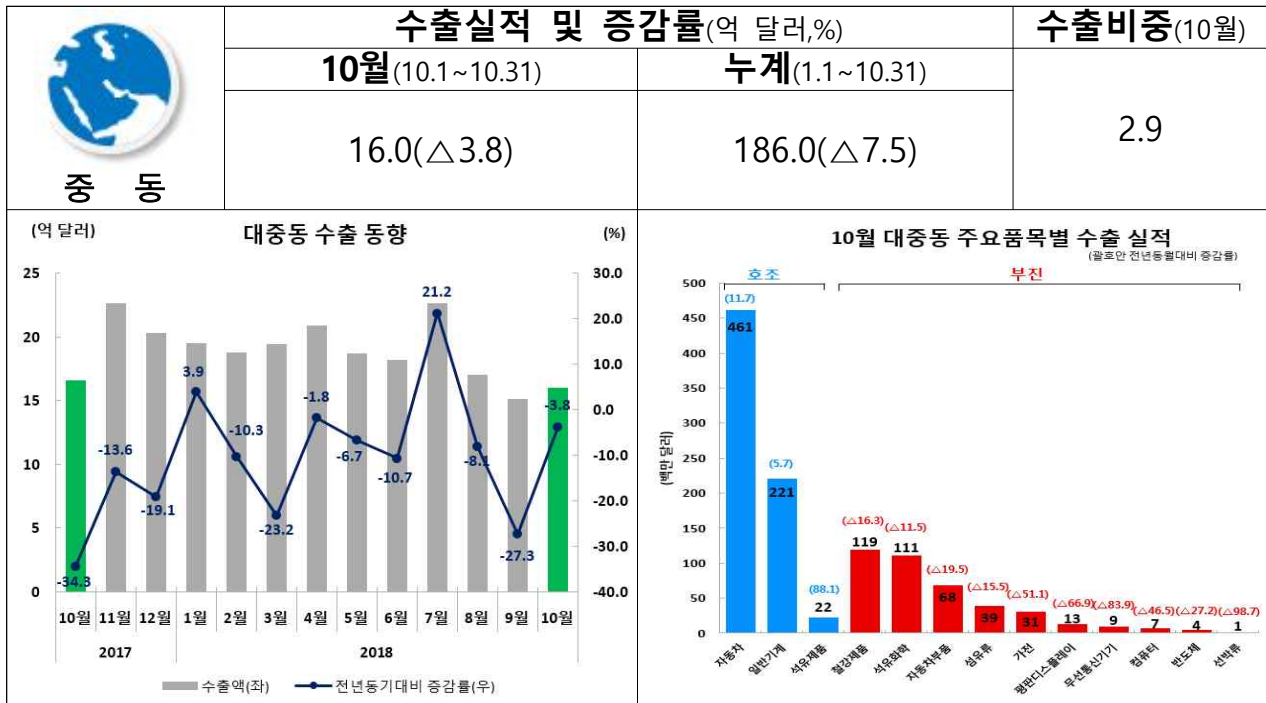
- **반도체(23.2% ↓)** : 스마트폰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 부진, 중국·대만 등 경쟁국 제품의 공급 증가 등으로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 **(멕시코)** 작년 10월 수출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17.10월 전년 동기대비 290% 증가) 및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이 전자제품 고급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판매량 감소하여 반도체 수요도 감소
- * **(브라질)** 스마트폰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 부진으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했으며, 중국,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등 반도체 공급원의 다변화로 인해 한국산 반도체 수출 감소

□ (특이동향)

- 브라질, 사회자유당(PSL)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가 대통령 당선(10.28)
 * 극우 성향이나 경제외교는 실리 추구, 다자협상보다 양자협상 선호,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 예상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10월 동향)** 유가 상승, 산업생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환율 시장 불안, 미국의 對이란 무역 제재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0월 對중동 수출은 내수 부진으로 인한 투자 위축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철강·자동차부품·가전 등의 수출이 부진하여 3개월 연속 감소율(△3.8%)을 기록

□ **(품목별 동향)** 철강·석유화학·자동차부품·섬유류·가전·평판디스플레이 10개 품목의 수출 감소, 자동차·일반기계·석유제품은 수출 증가

- **자동차부품(19.5%↓)** : 對이란 무역 제재에 따른 대금결제와 신규수입 지연 등으로 수입 감소

현장 정보

- * **(이란)** 이란 중앙은행의 외화배정 지연으로 한국수출기업에 대한 대금결제와 신규수입도 지연 중으로, 이미 8월 7일부터 진행된 미국의 이란과의 자동차부품 무역금지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자동차부품기업 Omid Fanar)
- * **(이집트)** 많은 소비자들이 경제 불황과 현지 화폐 구매력 저하로 고가의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는 대신 중고 부품들을 거래하기 시작했음. (Y&M Trading Import Co.)
· 이집트 파운드화의 환율 변동이 자동차부품 수입업체와 딜러들의 제품 판매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으며, 달러화 가격 상승으로 자동차부품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Universal Parts Al-Alamia Uptaico사)

- **섬유류(15.5% ↓)** : 對이란 무역 제재로 재수출용 원단 수출 급감 등 수출 부진

현장 정보

- * **(UAE)** 이란으로 직접 수출되는 물량은 없고 거의 두바이를 통해 재수출되는데, 대금 결제 및 환율변동성의 문제로 이란 측과 거래 어려움.
- * **(이란)** 10월말 현재 원화결제가 중단된 상황에서 신규 계약 불가능, 11월 4일 미국이 이란과의 금융거래 금지를 본격화하면 어려움 가중 예상

- **가전(51.1% ↓)** : 경기 및 정세 불안으로 주 소비층인 외국인 인구 감소 및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

현장 정보

- * **(UAE)** 소비자 수요가 전년대비 약 20% 가까이 감소함에 따라 수출 부진
. UAE 경기 및 주변국 정세 불안으로 외국인 인구가 점차 줄어들며 소비자층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 **(이란)** LG전자의 이란 사업 중단 등 미국의 이란 제재 영향으로 수출 감소 불가피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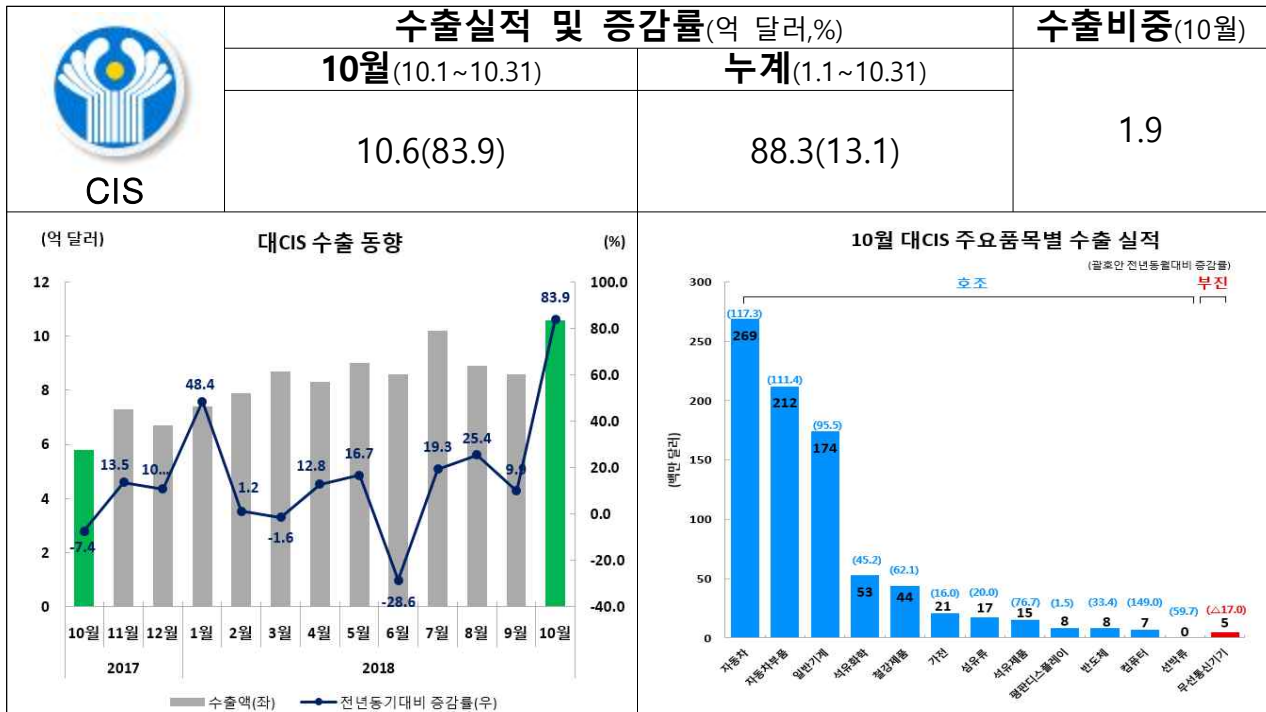
- **자동차(11.7% ↑)** : 소형 SUV 신차 출시 효과, 자동차 소비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 **(UAE)** 현지 수요가 큰 소형 SUV 신차 출시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여성 및 청년 소비자층을 겨냥한 다양한 색상·디자인 및 부가 옵션으로 그간 저조했던 자동차 수출 증가 기대
- * **(이집트)** 이집트 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이집트인들 비중이 높기 때문임. (이집트 자동차제조업협회)

□ (특이동향)

- 對이란 제재 복원을 틈타 중국 기업들이 이란 시장 잠식 중
 - * 현재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란 지사 폐쇄 및 수출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며, 연말에는 일부 상사들이 제한된 범위의 지사 운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철수할 것으로 예측
 - * 이로 인해 이란 수입상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한 중국회사와의 거래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상황이 일정기간 지속된다면 향후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우리 기업이 이란 시장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 따라서, 민간 차원의 비즈니스 행사 및 개별 출장을 통해 비즈니스 관계 유지 위한 노력 필요



* 자료 원 : 한국무역협회(K-Stat)

□ **(10월 동향)** 서방국의 對러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기준금리 상향 조정, 유가상승 및 산업생산 증가 등으로 경기회복 기조 유지되고 있으며, 10월 對CIS 수출은 전년 동기 수출의 기저효과 및 제조업·건설업 호황에 따른 자동차·일반기계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11년 5월(121.6%) 이후 최고의 월간 수출 증가율(83.9%)을 기록

□ **(품목별 동향)** 자동차·자동차부품·일반기계·석유화학·철강·가전 등 12개 품목의 수출 증가, 무선통신기기 수출 감소

- **자동차(117.3% ↑)** : 현지 자동차 판매 호조, 신차구입 시 인센티브 정책 등의 영향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러시아)** 보조금 정책 등으로 자동차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2018년 1월~9월 신차 판매는 전년 동기대비 14.9% 증가하며 자동차 시장 회복세 유지 . 2019년부터 VAT가 18%에서 20%로 인상 예정인 점도 현재 자동차 수입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 (AEB)
- * **(카자흐스탄)** 신차를 구입할 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SUV 선호현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형차가 많이 거래됨. (Azia Avto LLP사)

- **자동차부품(111.4% ↑)** : 동절기 차량 정비용 부품 수요 증가, 중고차 거래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 증가

현장 정보

- * **(러시아)** 동절기 자동차 정비 수요에 대비하여 애프터마켓 부품 수요 증가
-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등록차량 중 연식이 10년 이상인 자동차가 전체 대수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용 부품 수요 꾸준히 증가할 전망
- * **(아제르바이잔)** 현재 신차 판매는 매우 저조하나 중고차용 AS용 자동차부품 수요는 오히려 다소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일반기계(95.5% ↑)** : 주요국의 경기회복 및 제조업·건설업 호황으로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러시아)** 러시아의 제조업 육성 정책 효과로 제조업 부분 생산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설비 등 기계류 수입 수요도 증가
-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대부분의 기계류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국제품은 품질 및 가격이 우수하여 바이어들이 선호함. 작년과 비교하여 경제여건이 개선된 것도 수입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JSC Kemontsa)
-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경기가 아직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나, 건설 시장은 최근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건설 기계 장비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중장비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 (Dominanta)
- * **(우즈베키스탄)** 대형 가스·화학 프로젝트에 따른 화학기계 및 부품, 밸브, 펌프, 가열 난방기 등의 수요 증가

- **석유화학(45.2% ↑)** : 주요국의 경기회복 및 제조업 호황 등의 영향으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하여 수출 호조

현장 정보

- * **(러시아)** 러시아의 석유화학제품 생산은 2018년 1-9월 누적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대비 2.7% 상승했으나 9월에만 2.7% 하락한 양상을 보임. (러시아 통계청)
-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경기회복과 함께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에 이르기까지 석유화학제품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 제품의 수입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탄성중합체, 폴리프로필렌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Umedo Group LLC)

□ (특이동향)

- IMF, 향후 14개월간 우크라이나에 39억 달러 지원기로 결정(10.19)
 - * 기존 확대신용공여제도(EFF)를 통한 지원을 대기성 차관(SBA) 형식으로 대체
 - * IMF는 SBA 지원 조건으로 '2019년도 균형 재정 예산 확정, 가정용 가스 가격 인상'을 요구

참고 1

지역별 · 월별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전년동기대비 %)

지역	'17년 전체	'17년			'18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중국	142,120	12,580	14,001	13,848	13,381	11,523	13,578	13,035	13,853	13,820	13,727	14,403	14,589	14,796
	(14.2)	(13.5)	(20.4)	(14.9)	(24.4)	(3.6)	(16.5)	(23.1)	(30.0)	(29.5)	(27.2)	(20.9)	(7.7)	(17.6)
미국	68,611	4,727	6,382	5,296	5,160	4,682	6,078	5,945	6,157	6,423	6,151	6,048	5,817	6,977
	(3.2)	(△ 12.5)	(11.5)	(△ 7.8)	(4.4)	(△ 11.9)	(△ 2.0)	(△ 1.5)	(11.5)	(7.4)	(8.7)	(1.6)	(△ 11.8)	(47.6)
베트남	47,753	3,865	4,412	4,059	4,277	3,628	4,196	3,725	3,781	3,935	3,915	4,354	3,947	4,257
	(46.3)	(33.9)	(46.3)	(27.2)	(53.2)	(14.0)	(△ 3.1)	(△ 17.5)	(△ 9.0)	(△ 8.9)	(7.7)	(15.9)	(△ 16.6)	(10.1)
일본	26,816	1,848	2,520	2,450	2,584	2,446	2,603	2,483	2,514	2,583	2,542	2,410	2,463	2,782
	(10.1)	(△ 12.1)	(10.8)	(10.2)	(21.3)	(19.6)	(8.7)	(17.8)	(15.2)	(9.9)	(17.6)	(14.4)	(△ 2.1)	(50.5)
인도	15,056	899	1,109	1,161	1,221	1,162	1,211	1,260	1,363	1,367	1,483	1,417	1,283	1,336
	(29.8)	(△ 5.7)	(6.0)	(7.0)	(9.7)	(3.1)	(△ 11.1)	(4.1)	(18.7)	(16.9)	(△ 5.6)	(△ 30.3)	(11.4)	(48.6)
아세안	95,250	7,399	8,327	8,314	8,339	7,592	8,586	8,560	7,942	7,904	8,196	8,436	7,958	8,813
	(27.8)	(17.8)	(14.1)	(29.4)	(37.5)	(4.5)	(2.4)	(2.6)	(△ 2.2)	(△ 1.4)	(△ 1.9)	(11.9)	(△ 12.7)	(19.1)
EU	54,037	3,989	4,078	4,469	4,496	4,406	5,204	5,024	5,008	4,458	4,611	4,470	4,002	5,467
	(15.9)	(2.5)	(2.7)	(△ 9.2)	(10.4)	(12.0)	(21.9)	(△ 21.8)	(3.8)	(1.4)	(6.9)	(△ 4.0)	(△ 13.3)	(37.1)
중남미	28,095	1,886	2,326	2,200	2,612	2,393	2,257	2,190	2,160	2,231	2,704	2,477	2,011	2,730
	(10.4)	(△ 13.0)	(5.7)	(7.2)	(34.6)	(△ 3.6)	(△ 8.1)	(△ 3.7)	(2.3)	(△ 8.1)	(23.2)	(8.2)	(△ 42.7)	(44.7)
중동	24,380	1,660	2,260	2,026	1,946	1,881	1,936	2,092	1,867	1,818	2,257	1,695	1,506	1,597
	(△ 7.0)	(△ 34.3)	(△ 13.6)	(△ 19.1)	(3.9)	(△ 10.3)	(△ 23.2)	(△ 1.8)	(△ 6.7)	(△ 10.7)	(21.2)	(△ 8.1)	(△ 27.3)	(△ 3.8)
CIS	9,209	578	731	672	738	794	870	834	897	864	1,015	890	860	1,062
	(33.7)	(△ 7.4)	(13.5)	(10.8)	(48.4)	(1.2)	(△ 1.6)	(12.8)	(16.7)	(△ 28.6)	(19.3)	(25.4)	(9.9)	(83.9)
월별 총수출	573,694	44,791	49,707	49,040	49,224	44,525	51,316	49,856	50,695	51,095	51,815	51,183	50,617	54,944
	(15.8)	(6.7)	(9.7)	(8.8)	(22.3)	(3.1)	(5.5)	(△ 1.9)	(12.8)	(△ 0.3)	(6.1)	(8.7)	(△ 8.2)	(22.7)

참고2

'18.10월 지역별 13대 품목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지역명	품목명	반도체	일반 기계	석유 제품	석유 화학	자동차	철강 제품	자동차 부품	섬유류	컴퓨터	가전	평판 디스플레이	무선 통신 기기	선박류
중국	당월 (증감률)	4,600 (10.6)	1,428 (73.5)	798 (42.0)	2,049 (43.9)	1 (△46.5)	440 (38.8)	284 (△13.1)	172 (18.2)	321 (28.7)	56 (6.3)	982 (△16.6)	349 (△53.0)	31 (△59.3)
	누계 (증감률)	44,296 (43.1)	11,208 (28.0)	7,860 (55.0)	18,136 (8.7)	21 (△60.3)	3,715 (4.8)	2,500 (△10.9)	1,602 (△0.5)	2,848 (34.7)	463 (△22.9)	9,962 (△21.4)	3,645 (△26.0)	355 (△51.9)
미국	당월 (증감률)	853 (192.8)	766 (49.9)	263 (80.6)	191 (23.2)	1,458 (75.8)	267 (24.6)	554 (72.0)	134 (61.3)	140 (△39.1)	213 (7.2)	12 (29.3)	594 (△10.8)	4 (204.2)
	누계 (증감률)	4,677 (64.9)	7,272 (20.2)	2,956 (8.0)	2,195 (27.6)	10,873 (△10.0)	2,680 (△13.4)	4,978 (2.5)	1,187 (11.5)	2,113 (10.3)	1,759 (△12.9)	92 (△10.0)	5,060 (△1.3)	77 (△79.8)
베트남	당월 (증감률)	862 (26.8)	304 (18.3)	22 (△88.5)	217 (55.4)	84 (33.2)	139 (10.6)	43 (81.7)	259 (38.3)	12 (△42.8)	30 (2.6)	986 (4.5)	247 (△1.1)	6 (66.6)
	누계 (증감률)	9,026 (19.0)	3,105 (△25.8)	1,860 (17.5)	1,789 (17.1)	677 (△6.5)	1,450 (7.9)	379 (18.0)	2,527 (6.1)	98 (△60.9)	303 (△27.7)	7,040 (21.5)	2,262 (△20.3)	53 (28.0)
일본	당월 (증감률)	110 (4.5)	267 (33.5)	617 (447.7)	158 (66.3)	2 (91.9)	358 (23.1)	80 (9.9)	71 (26.1)	31 (△15.0)	53 (30.2)	12 (104.7)	38 (27.3)	7 (△11.4)
	누계 (증감률)	1,051 (8.5)	2,563 (6.0)	4,238 (92.6)	1,847 (39.6)	23 (△6.5)	3,396 (4.7)	767 (△2.1)	679 (5.6)	278 (0.1)	524 (14.5)	87 (13.1)	480 (0.7)	95 (△59.1)
인도	당월 (증감률)	124 (310.9)	221 (114.6)	67 (26.1)	231 (30.1)	0 (△24.6)	204 (11.8)	84 (23.2)	18 (42.5)	8 (71.1)	12 (△7.0)	10 (126.2)	16 (△26.6)	0 (△54.1)
	누계 (증감률)	1,058 (100.9)	2,045 (56.6)	602 (28.6)	2,331 (25.3)	5 (50.5)	2,275 (23.9)	798 (3.3)	179 (29.3)	71 (22.7)	141 (△23.7)	120 (38.1)	277 (△80.2)	11 (△31.4)
아세안	당월 (증감률)	1,847 (16.9)	656 (33.6)	930 (17.1)	586 (57.6)	186 (26.3)	466 (12.7)	79 (55.0)	427 (32.3)	38 (△31.7)	65 (11.5)	1,004 (4.1)	274 (△4.1)	90 (70.3)
	누계 (증감률)	17,972 (19.3)	6,116 (△12.7)	9,455 (27.7)	5,000 (15.2)	1,529 (△2.8)	4,826 (△10.1)	708 (9.7)	4,234 (3.6)	407 (△26.2)	532 (△27.7)	7,262 (19.1)	2,535 (△18.5)	2,016 (△22.6)
EU	당월 (증감률)	162 (22.5)	714 (69.6)	92 (951.5)	394 (56.6)	732 (22.8)	345 (22.7)	412 (58.5)	123 (41.5)	104 (41.6)	80 (10.4)	124 (7.8)	91 (22.5)	619 (△9.7)
	누계 (증감률)	1,755 (26.3)	5,988 (24.9)	886 (△24.8)	3,756 (18.9)	6,668 (6.6)	3,747 (30.6)	3,689 (4.1)	1,246 (11.2)	1,078 (17.6)	755 (△25.5)	1,031 (0.5)	990 (△17.0)	3,490 (△53.9)
중남미	당월 (증감률)	103 (△23.2)	223 (50.7)	67 (30.4)	142 (22.8)	266 (△1.1)	265 (56.6)	279 (26.6)	51 (42.8)	33 (18.8)	52 (13.4)	87 (△26.1)	132 (151.7)	561 (189.5)
	누계 (증감률)	1,512 (16.7)	2,218 (0.1)	574 (209.2)	1,398 (18.5)	2,621 (△15.6)	2,224 (19.0)	2,400 (△4.8)	481 (6.7)	410 (9.6)	478 (△21.3)	1,237 (△31.2)	521 (△31.5)	3,773 (1.8)
중 동	당월 (증감률)	4 (△27.2)	221 (5.7)	22 (88.1)	111 (△11.5)	461 (11.7)	119 (△16.3)	68 (△19.5)	39 (△15.5)	7 (△46.5)	31 (△51.1)	13 (△66.9)	9 (△83.9)	1 (△98.7)
	누계 (증감률)	61 (1.9)	2,249 (△16.0)	601 (61.6)	1,365 (△1.0)	3,910 (△11.9)	2,595 (43.1)	1,072 (△8.2)	459 (△19.1)	91 (△27.6)	518 (△38.4)	225 (△37.8)	188 (△47.5)	428 (△39.2)
CIS	당월 (증감률)	8 (33.4)	174 (95.5)	15 (76.7)	53 (45.2)	269 (117.3)	44 (62.1)	212 (111.4)	17 (20.0)	7 (149.0)	21 (16.0)	8 (1.5)	5 (△17.0)	0 (59.7)
	누계 (증감률)	71 (55.5)	1,401 (30.3)	104 (27.9)	475 (26.8)	2,128 (45.5)	503 (△15.8)	1,603 (12.0)	181 (11.2)	64 (△20.4)	156 (△17.6)	66 (△2.6)	52 (△34.5)	5 (△98.8)
품목별 총수출	당월 (증감률)	11,582 (22.1)	4,987 (51.7)	4,534 (75.0)	4,484 (42.7)	3,916 (35.7)	2,789 (22.1)	2,150 (36.8)	1,202 (30.3)	832 (3.3)	660 (5.5)	2,292 (△7.9)	1,656 (△18.2)	1,482 (△55.0)
	누계 (증감률)	107,171 (36.2)	44,442 (12.6)	38,929 (37.9)	42,209 (15.0)	33,152 (△4.4)	28,864 (△0.6)	19,381 (0.0)	11,723 (4.1)	9,276 (24.5)	6,089 (△18.9)	20,620 (△10.5)	14,787 (△19.3)	15,966 (△58.8)

참고3

'18.10월 지역별 유망소비재 ·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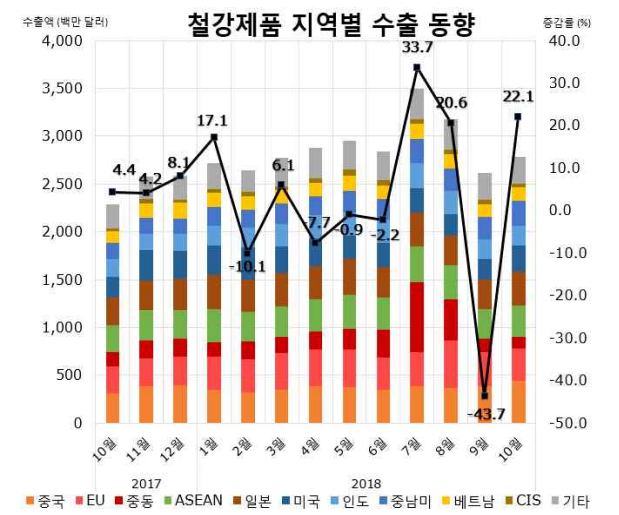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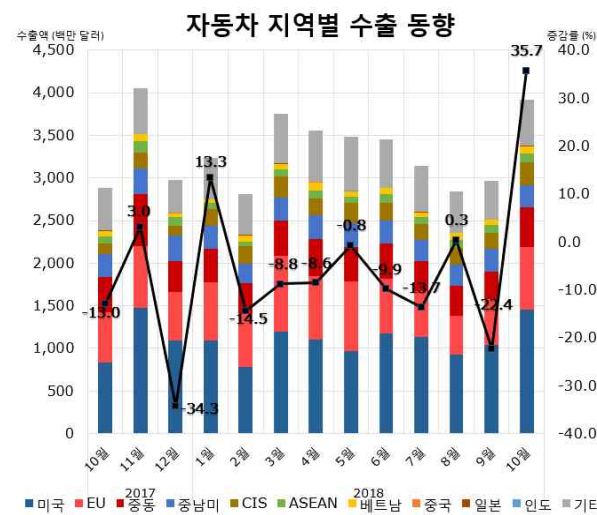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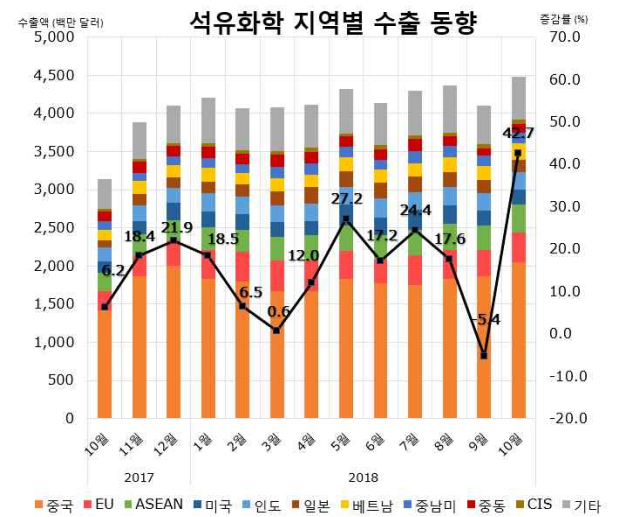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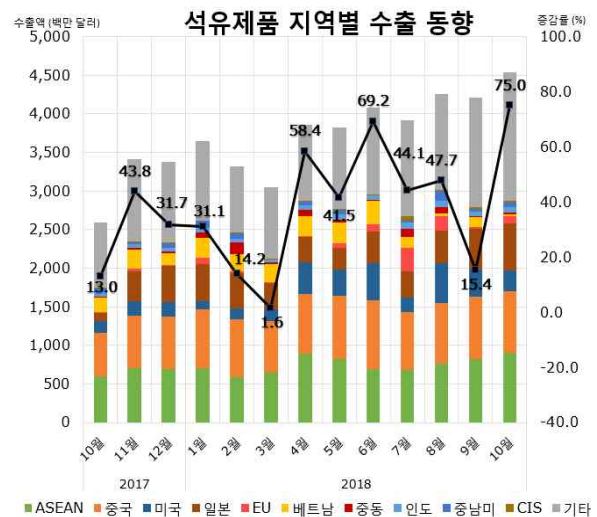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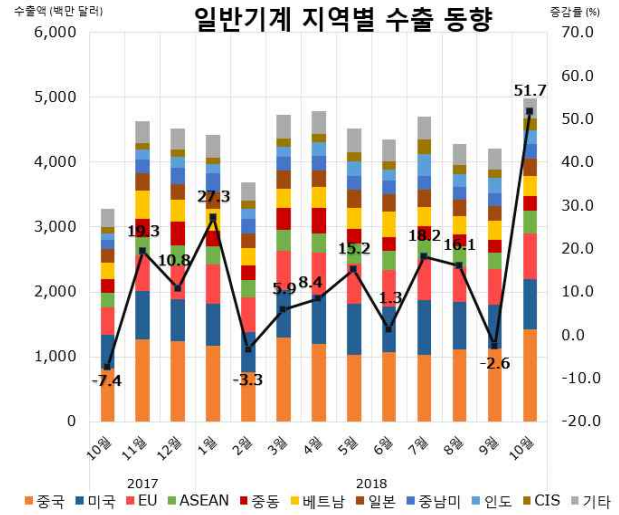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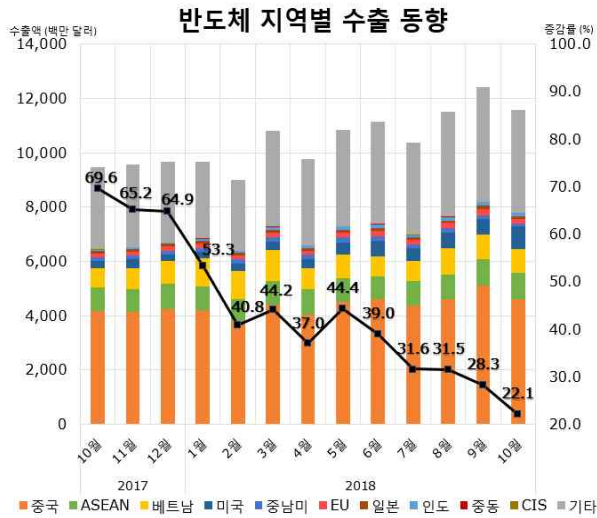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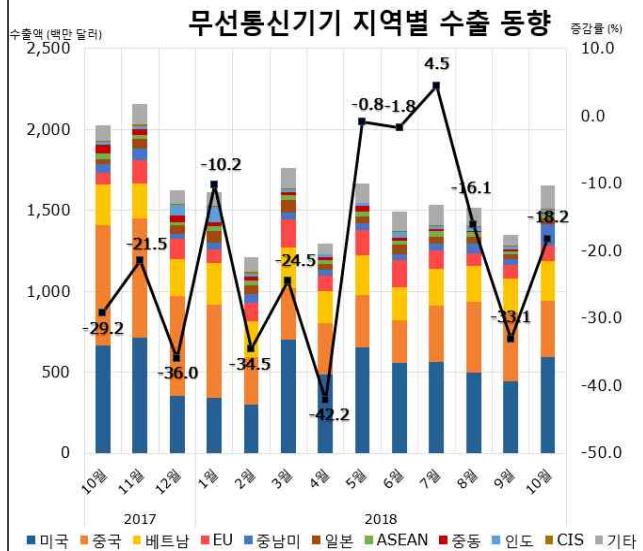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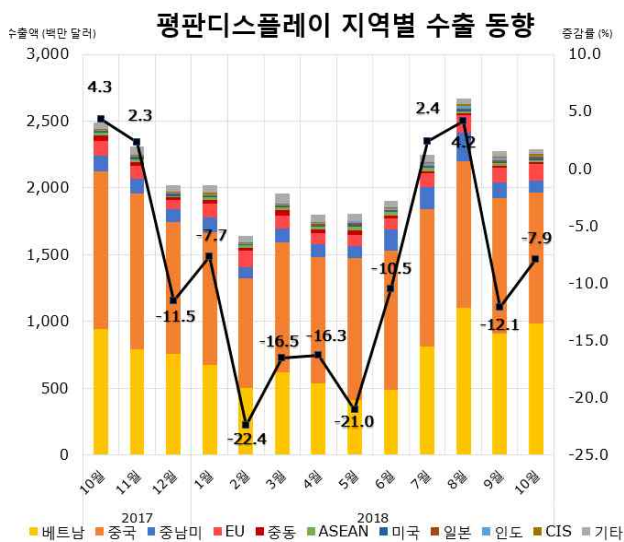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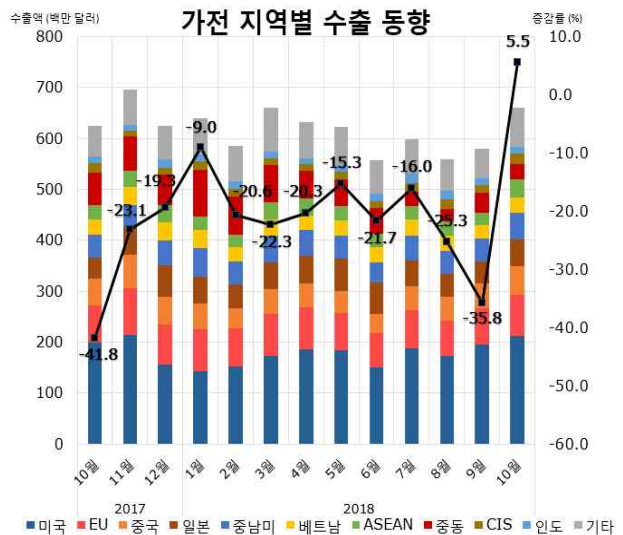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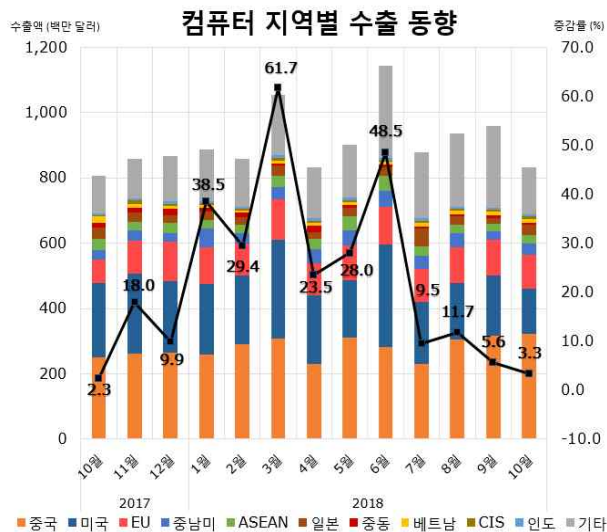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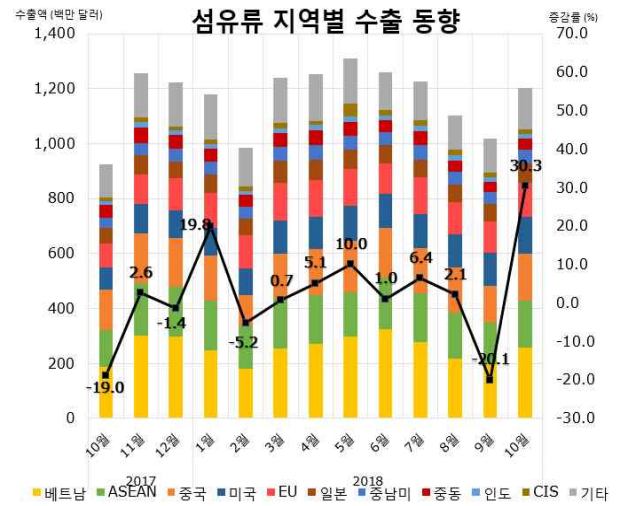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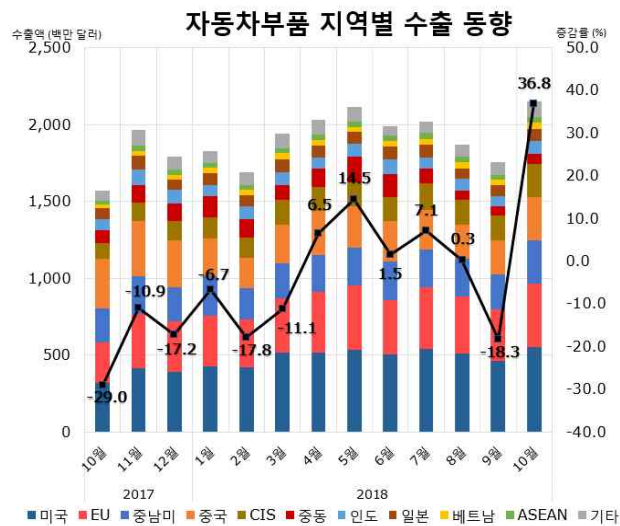
지역명	품목명	유망소비재 품목					고부가가치 품목			의료기기
		농수산물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OLED	SSD	MCP	
중 국	당월 (증감률)	127 (28.7)	260 (31.6)	22 (21.8)	117 (27.6)	48 (48.5)	224 (△27.1)	200 (8.9)	481 (△47.2)	39 (31.9)
	누계 (증감률)	1,077 (13.2)	2,244 (46.5)	201 (20.4)	981 (△18.0)	418 (13.5)	2,708 (△10.0)	1,982 (37.5)	5,607 (12.7)	397 (19.0)
미 국	당월 (증감률)	92 (29.2)	50 (83.4)	49 (39.0)	110 (38.0)	30 (43.3)	1 (120.0)	77 (△58.3)	15 (235.7)	56 (33.4)
	누계 (증감률)	770 (4.5)	440 (17.2)	292 (2.4)	988 (7.5)	282 (5.9)	9 (33.2)	1,531 (7.5)	81 (△13.4)	482 (11.5)
베트남	당월 (증감률)	46 (56.8)	16 (9.2)	10 (6.3)	42 (34.8)	50 (56.3)	616 (△15.1)	0 (△94.3)	145 (△14.6)	8 (48.9)
	누계 (증감률)	418 (20.3)	136 (28.7)	109 (△14.7)	392 (12.3)	519 (12.0)	4,785 (29.2)	3 (△73.5)	1,869 (29.6)	67 (△2.2)
일 본	당월 (증감률)	171 (22.7)	28 (100.8)	23 (15.7)	61 (10.8)	38 (24.4)	8 (189.0)	10 (△6.3)	24 (4.5)	19 (32.4)
	누계 (증감률)	1,694 (2.5)	249 (36.8)	221 (△2.0)	599 (△3.8)	344 (△0.5)	56 (105.2)	113 (7.8)	192 (24.6)	166 (6.5)
인 도	당월 (증감률)	2 (26.0)	1 (139.7)	3 (1.3)	12 (7.6)	0 (104.1)	1 (13.5)	1 (16.8)	41 (175.6)	13 (65.3)
	누계 (증감률)	14 (8.1)	10 (63.8)	33 (1.1)	143 (△91.0)	1 (22.8)	17 (111.4)	8 (109.9)	389 (162.6)	99 (11.5)
아세안	당월 (증감률)	130 (34.0)	66 (45.7)	34 (61.7)	90 (34.1)	72 (51.3)	619 (△15.6)	13 (△42.9)	187 (4.6)	30 (19.3)
	누계 (증감률)	1,315 (8.9)	561 (29.1)	303 (10.7)	853 (9.3)	736 (6.2)	4,860 (28.1)	178 (3.0)	2,045 (34.5)	272 (1.4)
EU	당월 (증감률)	34 (6.4)	18 (98.0)	118 (△22.8)	66 (43.2)	13 (35.8)	38 (△20.1)	73 (52.5)	14 (29.8)	63 (47.3)
	누계 (증감률)	327 (1.8)	170 (39.5)	1,063 (36.0)	611 (11.3)	152 (9.6)	347 (△2.2)	766 (26.3)	111 (△0.9)	490 (15.2)
중남미	당월 (증감률)	17 (28.9)	2 (138.1)	24 (△16.4)	34 (55.1)	1 (12.6)	22 (△28.0)	26 (21.2)	11 (△71.4)	14 (10.6)
	누계 (증감률)	123 (10.4)	19 (84.7)	216 (△7.0)	294 (△0.2)	15 (△3.5)	119 (△63.1)	334 (12.7)	269 (12.2)	126 (△2.3)
중 동	당월 (증감률)	30 (△19.4)	4 (104.4)	27 (585.3)	16 (△21.1)	2 (△21.6)	0 (△87.2)	1 (△29.8)	1 (△33.9)	30 (131.9)
	누계 (증감률)	294 (△38.1)	34 (22.4)	132 (63.9)	213 (△29.5)	21 (△26.5)	4 (△65.5)	9 (126.2)	14 (91.5)	204 (7.9)
CIS	당월 (증감률)	21 (31.7)	20 (160.4)	5 (57.9)	24 (34.6)	1 (21.6)	0 (△77.5)	4 (988.5)	2 (23.2)	19 (66.4)
	누계 (증감률)	187 (6.2)	167 (70.4)	40 (9.8)	246 (9.9)	11 (△21.2)	5 (69.7)	29 (100.6)	16 (87.1)	158 (38.2)
품목별 총수출	당월 (증감률)	736 (22.8)	575 (41.8)	354 (10.3)	611 (30.4)	226 (43.7)	918 (△18.7)	520 (△7.6)	1,863 (△30.9)	304 (41.1)
	누계 (증감률)	6,879 (3.5)	5,275 (32.5)	2,997 (23.3)	5,666 (△18.0)	2,147 (6.0)	8,166 (7.9)	6,426 (33.5)	19,954 (13.5)	2,633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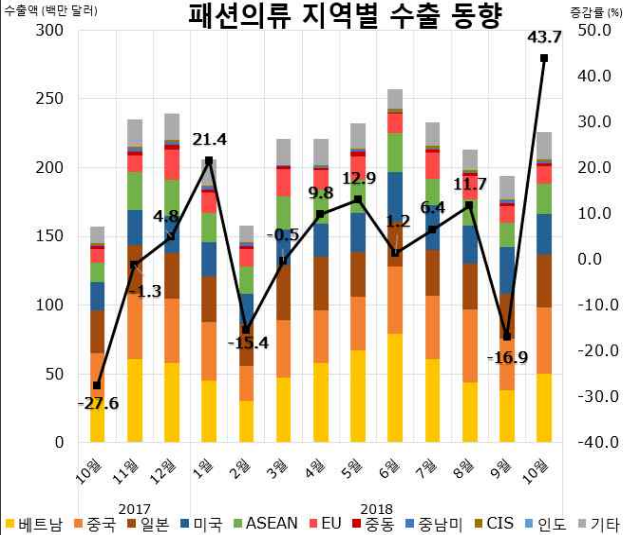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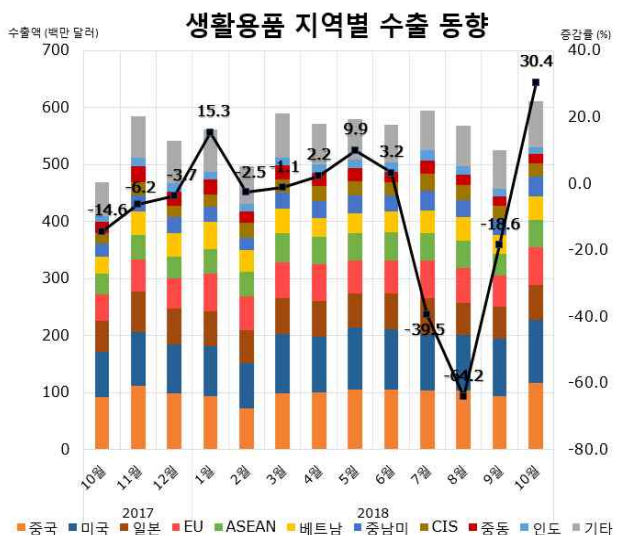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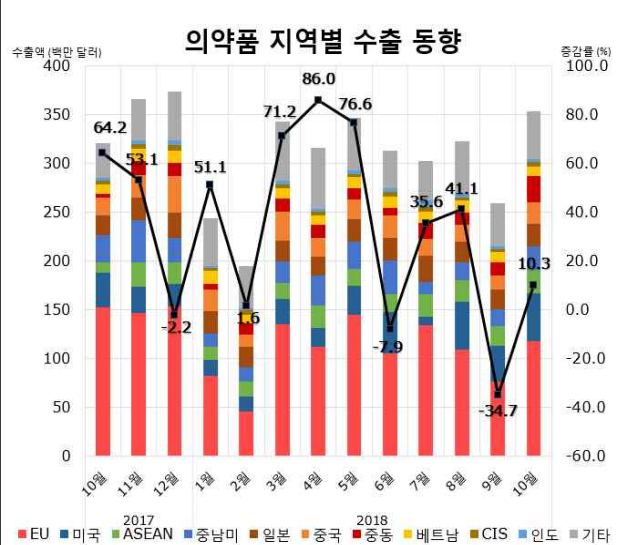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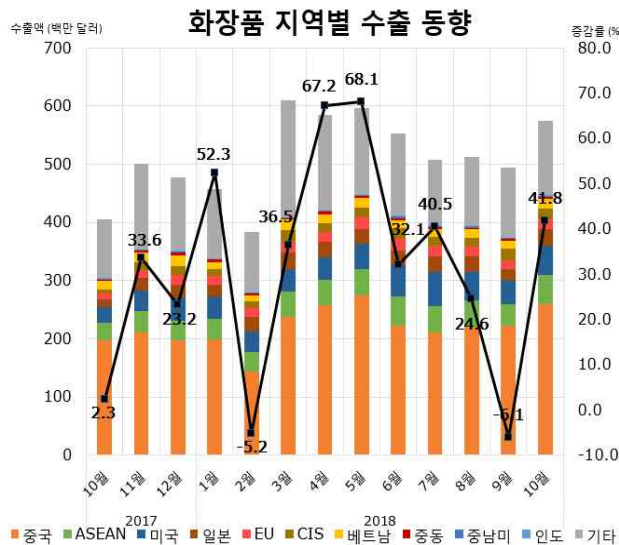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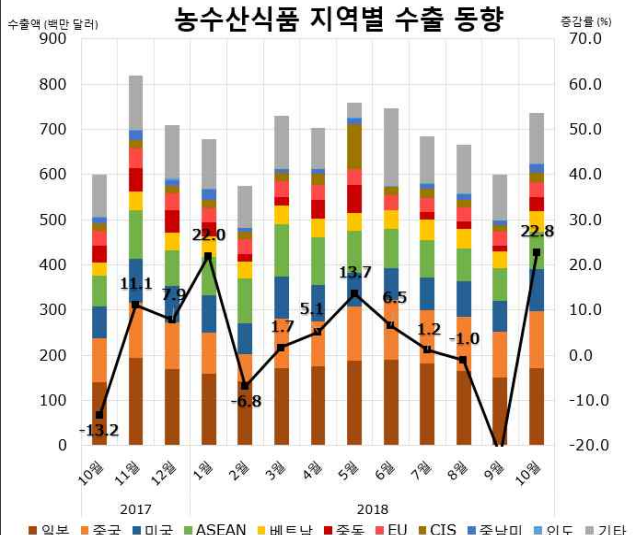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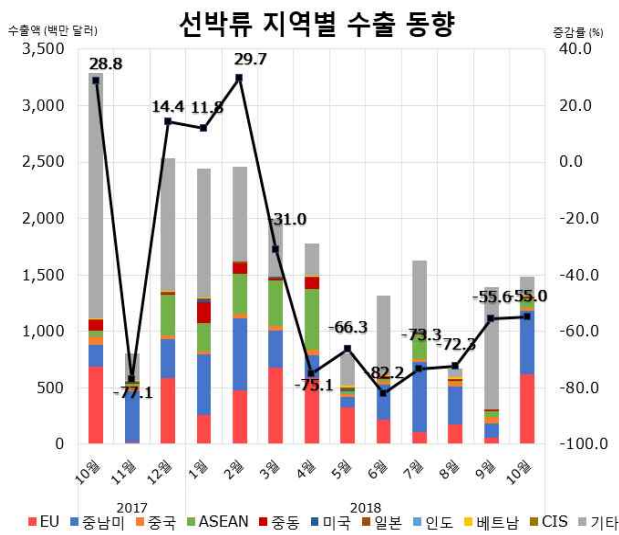
참고4

13대 품목 및 유망소비재 · 고부가가치 품목별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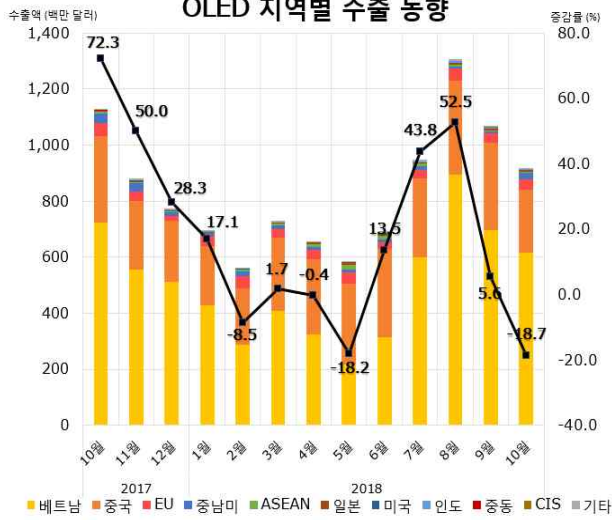
(ASEAN은 베트남 제외된 수치, 증감률은 품목별 총수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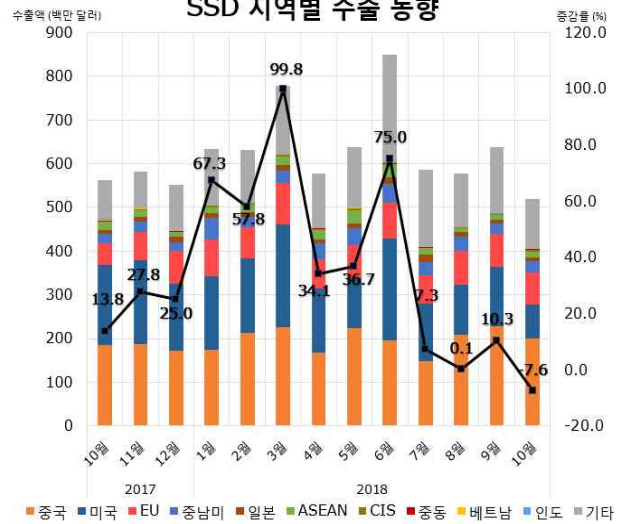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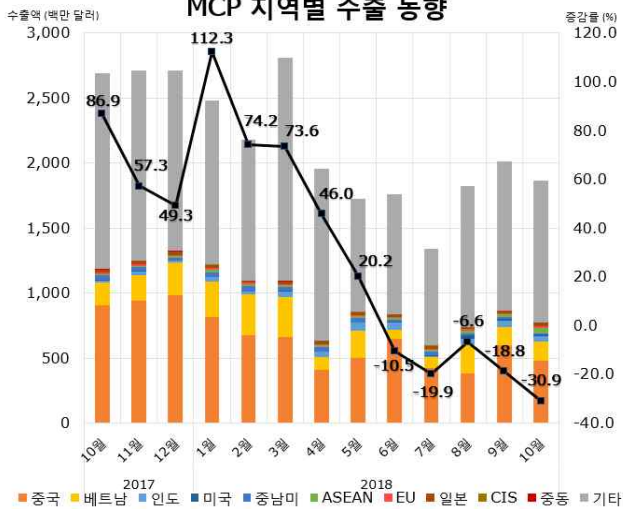
OLED 지역별 수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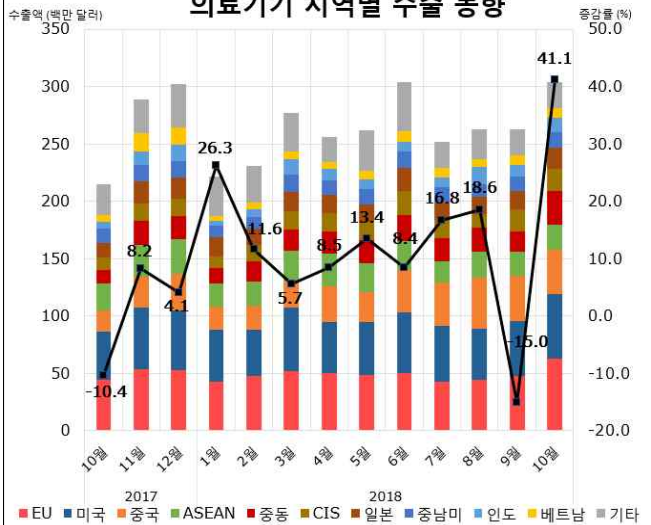
SSD 지역별 수출 동향



MCP 지역별 수출 동향



의료기기 지역별 수출 동향





작성자

- ◆ 중국지역본부 이성호 ◆ 동남아지역본부 원준영
- ◆ 북미지역본부 조동준 ◆ 유럽지역본부 김선우
- ◆ 호치민무역관 황홍구 ◆ 중남미지역본부 정석수
- ◆ 뉴델리무역관 임성식 ◆ 중동지역본부 오현택
- ◆ 일본지역본부 김한나 ◆ CIS지역본부 최진형
- ◆ 무역정보팀 김건숙



Global Trade Report 18-014

2018년 10월 수출 동향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8년 1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무역정보팀
 (02-3460-7418)

ISBN : 979-11-6097-816-2 (95320)



2018년 10월 수출 동향

- 지역별 수출 호부진 요인 및 특이 동향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